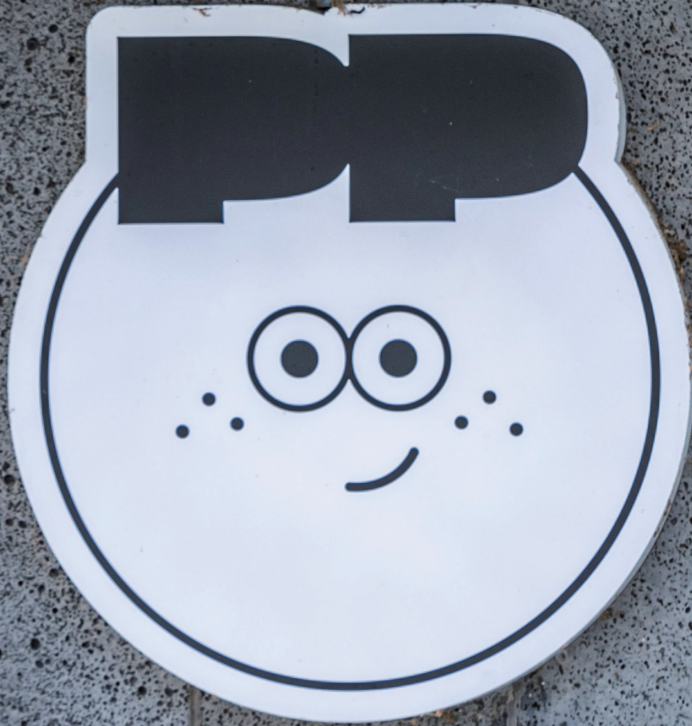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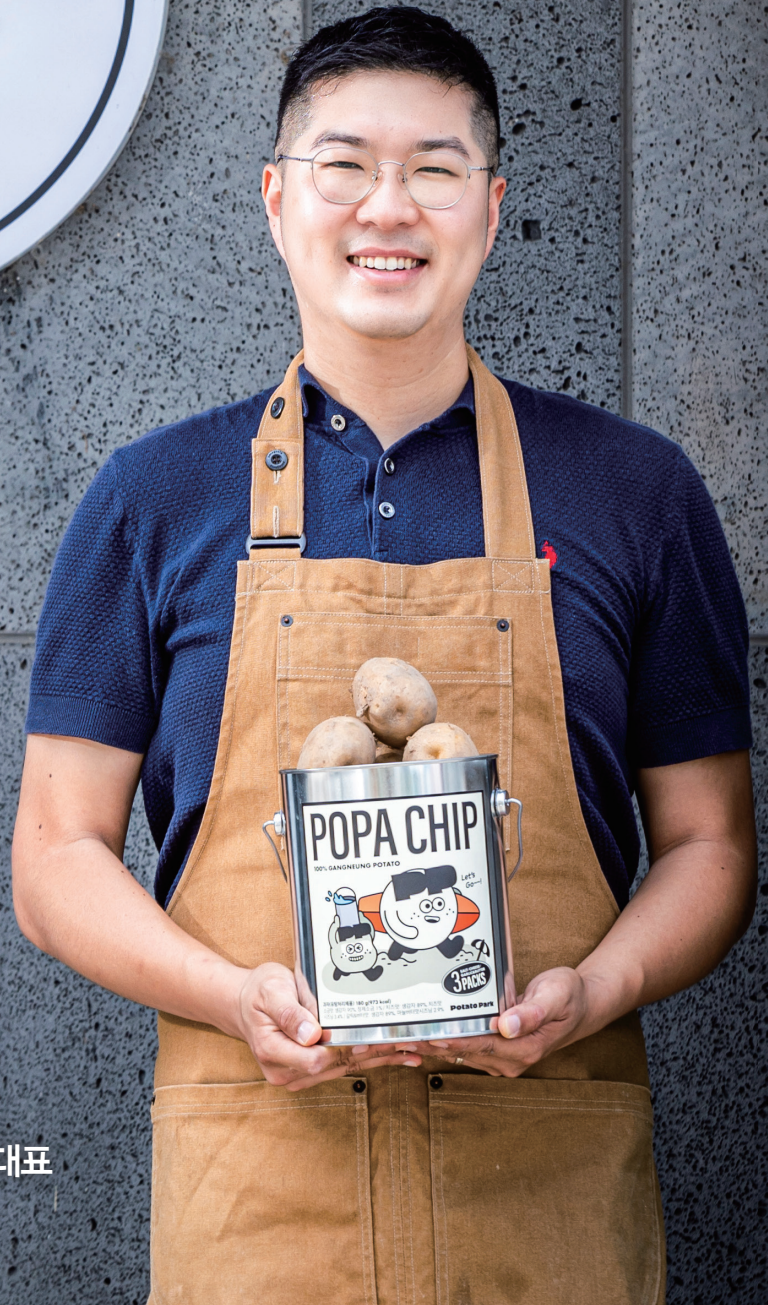
K-공감

상속세 어떻게 달라지나... 2024 세법개정안
체코 원전 24조 신화 뒤에 숨은 이야기
기획_아이가 행복입니다-유연근무
북한이탈주민 출신 오진하 감독의 꿈



“홀대받던 감자로
사업 키우고
지역 살려요”

‘2023 강한소상공인’ 더루트컴퍼니 김지우 대표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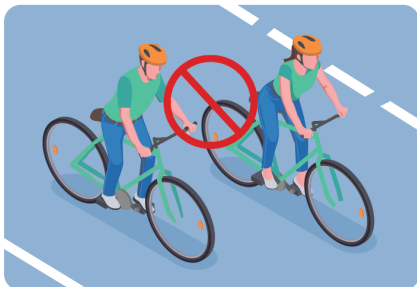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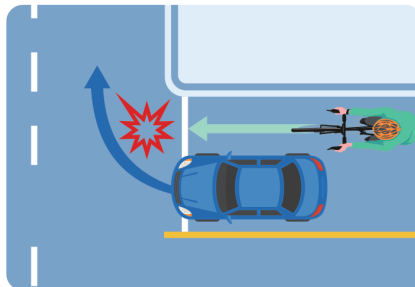
1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1 자전거는 한 줄로!



☑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불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가능

2 우회전 차량에 주의!



☑ 서행하며 차량 먼저 보내기
차량 운전자의 시야 벗어난 사각지대 주의 필요

3 횡단보도는 두 발로!



☑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기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를 이용하여 건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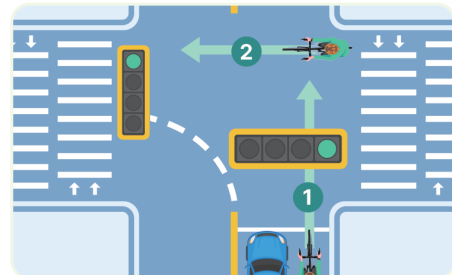
2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

☑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①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② 직진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

더 공감

아랍 고양이들과 사는 법

“야야, 가만히 좀 있어봐.”

“발톱이 언제 이렇게 길어졌지?”

평화로운 어느 날 오전, 집에서 고양이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몽글몽글한 발바닥을 잡고 발톱을 좀 깎아주고 싶은데 너무 싫어한다.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 조금만 다가가도 바로 뒷걸음질 친다.

나는 집에서 고등어 무늬의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름은 ‘로미’와 ‘참견이’로 품종은 ‘아라비안 마우(Arabian Mau)’다. 아라비안 마우는 우리나라의 ‘코리안쇼트헤어’처럼 아랍 세계에서 가장 흔한 길냥이들이다.


‘로미’는 포네틱 알파벳인 ‘R(로미오)’에서 따왔고 ‘참견이’는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다 호기심을 보이고 참견해대서 붙인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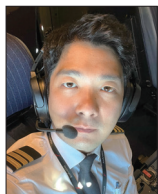
로미는 장난기가 넘친다. 와장창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십중팔구 로미의 소행이다. 집안 곳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듯하다. 반면 참견이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견하는 것이 일이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나 책상에서 일을 할 때면 꼭 옆에 와서 지켜보곤 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들과 함께 산 지 3년이 됐다.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아기 고양이들을 구조했을 때는 비쩍 마르고 작았는데 이제는 살이 올라 무거워졌다.

아랍 사람들은 대체로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다. 생전 무함마드는 ‘무에자’라는 고양이를 대단히 아꼈다고 한다. 하루는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려는데 고양이가 옷자락 위에 잠들어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무함마드는 무에자를 깨우지 않기 위해 본인의 옷자락을 자르고 기도를 하러 갔다고 전해진다.

고양이는 이슬람교에서 청결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고양이가 물을 마실 때 발로 물을 걷는 모습이 청결함을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반면 개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동물로 여겨졌고 주로 사냥이나 경비 등의 목적으로 길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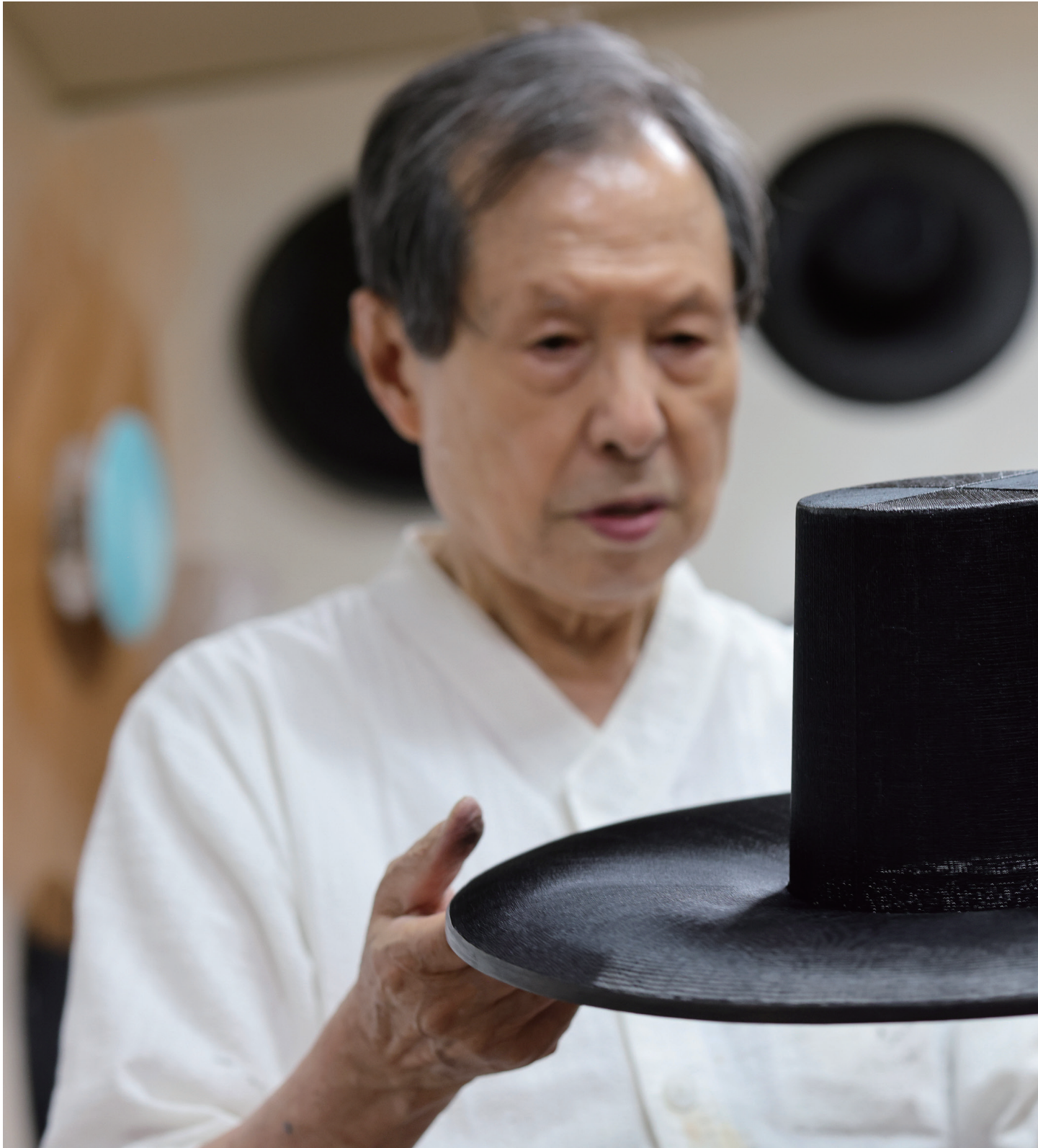
고양이들과의 교감은 큰 위로와 기쁨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들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렁그렁 하는 소리를 들으며 털을 쓰다듬을 때의 그 평온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올해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북적북적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졌다. 미안한 점이 있다면 신생아 육아에 온 열정을 쏟느라 고양이들이 조금은 뒷전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쿨한 성격의 고양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다. 낯설고 힘든 타향살이에서 이들 덕분에 힘을 얻는다. 



원요환

프로N잡러 중동 파일럿.
국내 경제지 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민항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가, 리포터,
콘텐츠PD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시간이 만든 명품 65년 장인의 갓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한국 드라마 '킹덤'에서 의외의 주인공은 배우들이 쓰고 나온 갓이었다. 당시 누리소통망에서는 갓에 대한 전 세계적인 찬사가 쏟아졌다. 명품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통하는 법이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대나무실로 엮어 만드는 갓의 디테일이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갓의 모양을 잡는 양태 작업 24단계, 갓대우(갓모자) 부분을 만드는 총모자 17단계, 이렇게 만들어진 양태와 총모자를 하나로 만드는 입자에 10단계 등 총 51단계를 거쳐야만 하나의 갓이 탄생한다. 이 모든 과정을 뜻하는 갓일은 고도의 집중과 인내를 요구한다. '바른 정신은 바른 옷차림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우리나라 선비들에게 갓은 품격을 상징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상투를 틀어 부모가 준 머리를 지키던 효 사상과 선비들의 자긍심은 1895년 단발령 선포와 함께 잘려나갔고 이와 함께 갓의 쓰임도 사라졌다.

"8~9개월 엮고 나면 시력을 버리고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 국가무형유산 제4호 갓일 보유자 정춘모의 말이다. 1958년 갓과 인연을 맺은 그는 당대 최고의 장인들에게 세 가지 갓 공정의 모든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젠 갓을 찾는 사람도, 갓을 만들려는 사람도 없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됐지만 그는 갓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한 땀 한 땀에 자신의 신명을 담고 있다.

"내가 안하면 누가 하겠나. 갓은 나의 운명인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그가 완성을 앞둔 갓을 점검하고 있다. **K**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7.29-08.04

No.765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4년 7월 29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원요환

'아랍 고양이들과 사는 법'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시간이 만든 명품
65년 장인의 맛

06

커버스토리

“홀대받던 감자로 사업 키우고 지역 살리고”

'2023 강한소상공인'
더루트컴퍼니 김지우 대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 한눈에

정책 돋보기

14

지금 용산은

“지역 경쟁력 갖추면
저출생도 개선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16

알쓸정책

휴가철 바가지 요금
걱정 뚫! 외

20

정책 돋보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23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42

42

K-피플

연극 '열 번째 봄' 연출한
탈북민 출신 오진하 감독

46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에 있다

48

어피티가 본 MZ 생각

“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51

정책현장

“화장품 사용은 이렇게!”
안전사용 교육
학교로 찾아갑니다

24

포커스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30

포커스

체코원전 24조 신화 뒤에
숨은 이야기

36

기획 아이가 행복입니다

유연근무로 방향 중
자녀 돌봄 해결!

40

이슈

“전공의 복귀 저해
불법행위 엄정 조치”



51



54

54

여행이 있는 주말 한국관광 100선

울릉도

58

2024 파리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하우스' 개관

59

청룡이의 정책툰

안전디딤돌

60

신기율의 마음 상담소

반려견 잃고 난 후 집안이 쓰레기장
정리 못하는 이상증상이 생겼어요

62

함께 즐기자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외

64

독자 공감

‘2023 강한소상공인’ 더루트컴퍼니 김지우 대표

“아무도 관심 없는 감자에서 오히려 사업기회 봤다 감자테마파크 만들 것”

KTX 강릉역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자리한 ‘감자유원지’는 오전 11시 개점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대기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여행객들이 채 여장을 풀기도 전에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정답은 ‘메밀 김밥 필 무렵’, ‘감자 솔밥’, ‘감자눈 카레우동’ 등 독특한 메뉴에 있었다. 강릉의 대표적인 식재료를 새롭게 해석한 일종의 퓨전음식이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색다른 ‘강릉의 맛’으로 감자유원지는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 방문코스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문을 연 뒤 매년 6만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 감자 맥주, 꽃돼지(감자) 블렌딩 티, 감자비누 등 1층 카페와 지하 1층 기념품숍에도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친다. ‘유원지’라는 이름대로 감자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가 집약돼 있다.

‘강릉 핫플레이스’를 만든 주인공은 더루트컴퍼니 김지우 대표다. 대학에 가기 전까지 강릉에서 나고 자란 김 대표는 서울에서 여러 차례 창업을 경험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감자’였다. “감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작물이지만 누구도 감자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가 털어놓은 창업의 이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오히려

사업 기회를 봤다.

김 대표식 ‘감자 비즈니스’의 영역은 음식점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자를 직접 육종하는 것부터 이를 유통하고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까지 폭넓다. 그는 이를 ‘감자 밸류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칭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에 고품질 감자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는 ‘못난이감자’로 감자칩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구축했다. 올해로 창업 4년 차, 2023년 매출 5억 원을 기록할 만큼 성장세도 가파르다. 더루트컴퍼니는 이 같은 사업경쟁력을 인정받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피칭대회에서 로컬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김 대표를 만난 것은 정부가 7월 3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갈수록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정부가 나서 적극 키워내겠다는 뜻이다. 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더루트컴퍼니의 목표는 강릉에 ‘감자 테마파크’를 조성



강원 강릉시 임당동 '감자유원지'에서 만난 더루트컴퍼니 김지우 대표. 농가에 고품질 감자 재배기술을 컨설팅하고 못난이감자로 감자칩을 개발하는 등 '감자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감자를 강릉의 대표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사진 C영상미디어

하는 것. 고향을 배경으로 감자 비즈니스 지도를 그리고 있는 김 대표에게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 과정을 들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했다.

서울에 살다 보니 자연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만 지방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강릉에 살기 위해 창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은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방문객 숫자는 전국 2~3위를 다룰 만큼 많다. 관광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 충분히 사업 기회가 있다고 봤다.

창업 아이템으로 '감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

감자는 강원도의 대표 작물이지만 활용도는 3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다른 작물에 비해 시장이 크지 않은 탓에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기계화 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



“사업적으로 보면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감자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아우르는 ‘감자 밸류체인’을 모토로 한 이유다.”

‘감자유원지’는 감자를 활용한 퓨전음식을 선보이며 강릉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감자맥주, 감자비누 등 감자를 활용한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사진 C영상미디어

는다. 농가에선 ‘20년이 지나도 감자 스마트팜은 안 생길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강릉 감자는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더 힘들다. 갈수록 감자 농가가 줄어든 거란 생각에 감자를 ‘강원도 대표 콘텐츠’로 제대로 개발해봐야겠다고 싶었다.

농사 경험이 없는데 감자 육종부터 시작했다.

감자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감자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창업 후 처음 1년간은 전국 감자농가만 찾아다녔다. 농민들은 종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바이러스 피해를 겪고 기술이 아닌 경험에 기반한 재배로 생산량 감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동 창업자인 권태연 이사의 아버지인 국내 최초의 씨감자 명인 권혁기 왕산종묘 대표와 파트너십을 맺고 씨감자 보급부터 했다. 농사 한 번 안 지어본 젊은이가 뭘 가르쳐주겠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됐겠나. 하지만 끊임없이 설득했다. 국내 토양에 적합한 단오, 왕산, 백작 등 우수한 씨감자 재배기술을 농가에 컨설팅해주고 생산된 감자를 계약재배 형식으로 받았다. 불안정한 판매로 인한 농가의 유통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받은 감자로써는 뭘 했나?

처음엔 유통만 했다. 그런데 유통 측면에서 감자는 큰 매력 없었다. 우리나라는 감자를 먹는 방식이 다양하지 않은 탓에 좋은 육종을 재배한다고 해도 특별히 찾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감자유원지’다. 강릉은 초당 순

두부, 장칼국수, 감자옹심이 등 유명한 향토음식이 많지만 오랜 시간 변화가 없었다. 감자유원지에서는 품질 좋은 감자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요리를 개발해 제공한다. 강릉 여행객에게 색다른 식경험을 주고 싶다.

문난이감자로 만든 ‘포파칩’도 2022년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 기념품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을 만큼 주목받았다. 버려지는 감자로 감자칩을 만들 생각은 어떻게 했나?

상품성이 없어 버려지는 감자가 글로벌 기준으로 한 해 생산량의 33%나 된다.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만든 게 ‘포파칩’이다. 왕산 씨감자를 업사이클링(새 활용)했다. 감자유원지와 평창 삼양목장, 속초 칠성조선소 등 강원도 대표 관광지 몇 곳에서만 판매한다. 강원도 여행객에게 특별한 기념품이다. 사실 ‘포파칩’도 대도시 편의점에 놓여 있다면 무슨 매력이 있겠나? 소상공인의 열악한 유통망을 ‘강원도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로컬브랜드의 매력으로 역이용한 셈이다.

감자 육종 및 컨설팅, 유통, 가공식품 개발, 음식점업까지 사업 영역이 무척 넓다.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사업적으로 보면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감자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아우르는 ‘감자 밸류체인’을 모토로 한 이유다. 당연히 모든 사업 영역에서 최고가 되긴 힘들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삼은 것이 씨감자 육종을 비롯해 분야별로 지역 파트너와 협력한 거다. 감자유원지는 식음료(F&B) 크리에이티브그룹 피치차일드컴퍼니와 함께 기획했고 최근 개발한 ‘강

룽감자칩'은 감자 가공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시니어 전문가와 손잡고 만들었다. 현재는 가수 박재범이 만들어 화제가 된 '원소주'를 위탁생산한 원주의 모 월양조장과 협력해 감자 증류주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중기부의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서 강조하는 것도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파트너십'이다.

소상공인은 지역과의 상생이 필수다. 로컬브랜드의 경우 더욱 그렇다. 농가에서 좋은 감자를 많이 생산해야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돼야 농가도 더 많은 감자를 유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해 피칭대회에서 우승한 것 역시 지역 농가, 지역 전문가 등과 협력한 점이 크게 작용한 덕이다.

이 사업을 통해선 어떤 도움을 받았나?

이전까지 소상공인 지원은 대출, 이자면제 등 손실을 보전해주는 자금지원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현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지방소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제는 소상공인을 기업가로 육성하는 식으로 지원이 고도화되는 추세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다. 특히 도움이 된 건 2박 3일간 열린 브랜딩 스쿨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과 네트워크를 맺은 것이다. 모월양조장을 만난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다. 다른 사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돈으로도 못 사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
소상공인 창업은 식당, 카페 같은 공간창업이 많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채용이다. 최저시급이 오른 탓도 있지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 결국 '기계화'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도입에 관한 지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창업 초기부터 지원돼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을 준비 중인 이들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가장 중요한 건 창업 분야에서 미리 경험을 쌓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만큼 이에 관한

데이터도 많다. 가령 음식점 창업을 한다면 곳곳에 있는 식당이 모두 데이터인 셈이다. 직접 방문해보는 건 물론이고 식당에서 최소 몇 개월은 일을 해봐야 한다.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가치인지 생각해 보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답이 있다.

강릉에 '감자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감자와 관련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생각이다. 농촌에 감자농업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그 옆에 감자박물관까지 세우는 게 꿈이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는 포도 산지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와인 체험 투어까지 제공하면서 하나의 산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작물 재배는 농촌에서 하고 가공은 도시에서 하는 식이지 않나. 이것을 모두 농촌에서 가능케 하는 더 확장된 감자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싶다. 농촌과 지역, 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조윤 기자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

9월 파이널 피칭대회 개최... 최대 1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1차 오디션을 통해 210개 팀을 선발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유형은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백년가게 및 소공인 ▲온라인 셀러 ▲글로벌(수출 및 해외입점) 등으로 나뉜다.

중기부는 총 530개 팀 중 지난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소상공인 210개 팀에 사업화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를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 추가로 최대 40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이밖에도 투자 유치, 멘토링, 교육, 선배기업 방문, 전시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5대 고정비용’ 부담 덜고 ‘3종세트’ 금융지원

“F1경기 팀플레이 처럼 소상공인 지원 신속하게”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하는 한편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부터 각종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운전자는 자영업자다. 여기에 지방정부, 사업자 단체, 금융기관 등 여러 부처가 딱 달라붙어 팀플레이를 ‘피트스톱’처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스톱이란 자동차 경주(F1)에서 차량 정비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즉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내수회복 지연과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 2023년 4분기 9.2%, 2024년 1분기 10.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0.2%포인트로 낮춘다. 세 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연체한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인하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확대가 시작된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의 모습. 사진 뉴스시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빚이 크게 늘자 당국은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신용점수(NCB) 기준을 기존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느슨하게 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비싼 배달료, 상생 방안 마련한다

‘5대 고정비용’으로 불리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특히 최근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

기부는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20만 원)은 7월 3일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정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키오스크, 서비스

?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자금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대 7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 대상이다.

새출발자금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콜센터(1660-1378)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 주요 내용

채무비용 덜어주는 금융지원 3중세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분할상환·만기도래 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
-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전기료·임대료·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 플랫폼 상생협력 방안 도출(하반기),
취약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2025년~)
- 전기료 특별지원 대상 확대
(연매출 3000만 원 → 6000만 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025년까지)

소상공인 매출지원 및 안전망 강화

- 소공인 판매대금 신속 정산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가맹 제한업종 축소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및 복지기능 확대

스마트·디지털 기술 현장보급 확산

-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 스마트 기술 보급
- 데이터 기반 똑똑한 사업장 구축 추진
- 민간 플랫폼사 역량 활용한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추진

소상공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물 입점 컨설팅,
제품 현지화 등 지원
-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
- 수출 교육·멘토링 등 소상공인 첫 수출 지원 강화

새출발 채무조정 및 일시상환 부담 완화

- 한계 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자금' 지원 확대
- 폐업 시 사업자대출 → 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전국 확대
- 폐업 소상공인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 추진

한계·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 폐업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강화 추진

로봇 등)를 지원하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선 생계형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스케일업' 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응답은 85%,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도 70%에 이르렀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을 지원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톱스(TOPS)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톱스 프로그램이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도 밀착 지원한다. 먼저 해외마켓 타겟업체 등 올해 1100곳을 대상으로 현지화 컨설팅을 하고 9월부터 특화 품목 수출기업에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첫 수출기업 800곳에는 올해 안에 100회 내외의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한다.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 지원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2023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했다(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약 570만 명). 2023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각각 1조 2600

억 원, 1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알파(α)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크게 늘어나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 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돕는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

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만~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 밀착관리를 제공한다.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준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경영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곳에서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K** 조윤 기자

소상공인 정책이 궁금하면 이곳으로

종합안내	중소기업콜센터	소상공인24	기업마당
	1357	www.sbiz24.kr	www.bizinfo.go.kr
분야별	기관	전화	누리집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ols.semas.or.kr
지역신보(전환보증, 브릿지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koreg.or.kr
착한임대인	국세청	126	hometax.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sbiz.or.kr
전기료 특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200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매출채권팩토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1-3655	kosmes.or.kr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카드형)1533-1728	ongift.or.kr
		(모바일)1670-1367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8899.or.kr
디지털 기술 보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00-6185	sbiz.or.kr/sms/main.do
해외진출(첫 수출 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34	kr.gobizkorea.com
해외진출(소핑몰 입점)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021	fanfandaero.kr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1660-1378	newstart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ccrs.or.kr
재취업·재도전·재창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sbiz.or.kr/nhrp/main.do

“지역 경쟁력 갖추면 저출생도 개선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고령화

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아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5일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사안인 만큼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 양국 손잡고 세계 진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3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양국 모두의 원전 사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 투자 및 첨단 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의 초청으로 9월 중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서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협의를 위해 특사로 파견한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4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피알라 총리를 예방했다.

특사단장인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피알라 총리는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체코 원전 사업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례회의를 개최해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원전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K**

강정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 11곳 추가 선포

“응급 복구·구호 지원에 모든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7월 15일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 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휴가철 바가지 요금 걱정 뚫!

부당 상행위 강력 대응... 안전한 피서길 특별교통대책도

휴가철 짹 막히는 도로 걱정은 덜어도 될 듯하다.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고속도로 등을 신규 개통하고 갯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크게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이다.

먼저 고속국도 2개 구간(33.3km), 일반국도 11개 구간(55.79km)을 개통한다.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1552km)은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갯길차로 운영(53개 구간 263km), 우회 정보 제공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는 화장실 717칸을 확충한다. 288곳의 차양시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철도와 항공 여행객의 편의도 챙겼다. 버스·

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과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각종 교통시설의 사전 안전점검도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 10곳을 예측해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그 밖에도 2414대의 구난차량 준비, 보험사와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풍수해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연약지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비탈면 유실 등 상황 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도 유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업체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설치한 물가 대책 상황실과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피서지에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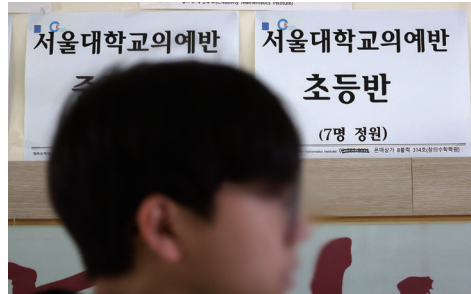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으로 고속국도 2개, 일반국도 11개 구간을 개통하기로 했다. 사진은 휴가철 서울 서초구 잠원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간. 사진 뉴시스

초등 의대반 등 학원 선행학습 합동 현장점검

교육부는 8월 30일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교육부가 초등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게시된 의대 준비 안내문. 사진 뉴스스

각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거짓·과장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7월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만 원→5만 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민생 활력을 저

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도 나왔다. 이에 전원위원회는 가액 기준 조정을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고폰 거래 투명하게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추진

중고폰 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의 핵심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의 규정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했고 구매자는 중고폰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의 규정이 골자다. 이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체계를 마련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 48곳 선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2024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 곳곳의 본받을 만한 치매안심마을을 뽑은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안심마을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 중이다. 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지역이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우수 마을은 총 48군데다. ▲서울(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부산(부산진구) ▲광주(동구, 서구, 남구) ▲대전(서구) ▲경기(고양시 일산서구, 군포시, 이천시, 화성시, 광명시, 오

산시) ▲강원(정선군) ▲충북(청주시 청원구,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충남(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담양군, 순천시,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경북(포항시 남구, 경주시, 의성군, 청송군, 고령군) ▲경남(의령군)이다.

이 중 경북 경주시는 치매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꼬꼬무 기억다방(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이 머무는 다양한 방법)’ 운영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7월 23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기적인 대면·비대면 상담과 더불어 내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도 진행한다. 시범사업 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 48곳의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했다. 사진은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3리에 위치한 치매안심마을. 사진 증평군

“디지털 격차 해소” 기초생활수급자에 바우처 시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 6000원 감면)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 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으며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도서 등)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누리집(www.digital-v.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바우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흥업소 마약범죄 합동단속

경찰이 하계 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대상에 클럽 등의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마약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클럽 및 유흥업소의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 소방, 구청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역 일대 클럽의 안전 점검을 하고있다. 사전 뉴시스

인공지능(AI) 전화로 위기가구 찾아낸다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화로 초기 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 상담을 해왔다. 앞으로는 AI가 이 단계를 대체한다.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하는 건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한 후 전국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9월 13일까지 10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AI 초기 상담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시·군·구의 60%를 대상으로 한 후 11월 하순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AI 초기 상담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실한 재창업자 폐업이력 있어도 대출심사 불이익 안받게 한다

금융위원회가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성실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서 차단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의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된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K** 박지현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용자 자산은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처벌하고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시장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조정과 논의를 거쳐 만든 결과다.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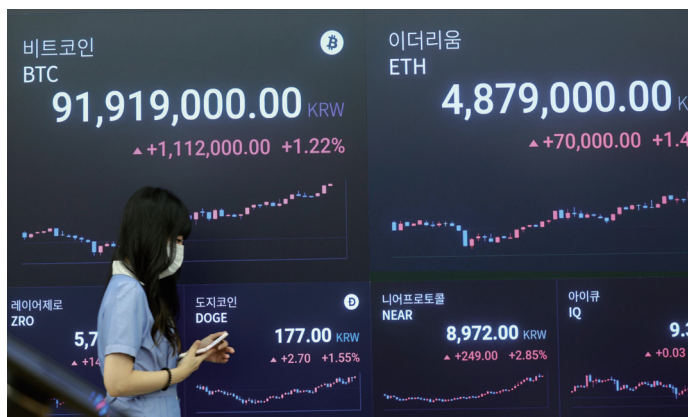
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

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동시에 거래블록(송금 정보 기록제)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시장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냈다. 사진 뉴시스

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또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금융위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6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및 감독규정·조사업무규정(7월 10일 금융위 의결)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2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정부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된 것은 물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장질서의 확립을 부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가상자산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K**

임연영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Q&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모든 가상자산의 안전성 보장을 의미하나?

아니다.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 거래는 적정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 거래소는 FIU 누리집(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법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나?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이다.

입출금 차단 시 사전통지 방법은?

가상자산법상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는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및 그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이다. 다만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나?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나오는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를 적용한다.

이용자 명부 작성·비치 의무 중 비치 의무의 이행방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 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두고 이용자 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익 산정과 관련,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달라지는 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종가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산정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8시간 단위(예: 한국표준시 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복수 거래소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당이익 산정방식은?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란 위반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복수 거래소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실버타운 설립 문턱 확 낮추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초고령화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고령층에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도심 내 유희시설 활용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 규제 등으로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데 주목했다. 또 서비스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관리체계 부재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구축했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

실버타운

-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2023년 누적 9006세대)
- 보증금 2억~10억 원, 월 임대료 230만~460만 원
- 안부 확인+청소·식사서비스+건강·여가서비스

실버스테이

-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2024년 도입)
-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시세 95% 이하) 있음
- 건강 관리·안부 확인과 식사서비스(기본)+기타 서비스 선택 이용

고령자 복지주택

- 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2023년 누적 3956세대)
- 보증금 200만~350만 원, 월 임대료 4만~7만 원
- 운동·여가시설+식사서비스+복지·보건 서비스(지방자치단체)

지문 관계부처합동

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지의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유희시설 및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K**

임연영 기자

직전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비급여 보험 수령액 따라 보험료 최대 5% 할인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98.7% 해당

7월 1일부터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갱신 때 직전년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 해주고 있어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가 대상이예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고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하는데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요. 2021년 7월 출시한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보험료 차등 적용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보험료 할인 여부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등급을 나눠 결정해요. 가령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1등급,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2등급이에요.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각각 3~5등급에 해당돼요. 1등급의 경우 직전년도보다 보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험료 할인·할증률	5% 할인 (잠정)	유지	100% 할증	200% 할증	300% 할증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없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가입자 비율(추정)	62.1%	36.6%	1.3%		


자료 금융위원회

료를 5%가량(잠정) 할인받을 수 있어요. 2등급이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돼요.

물론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3~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할증률은 3등급 100%, 4등급 200%, 5등급 300%예요.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가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

외돼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사전 안내를 위해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1년간 지급 받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돼요. 그 후에는 해마다 원점에서 등급을 재산정할 방침이에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조윤 기자

2024 세법개정안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 5억 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행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자녀공제 금액 조정

* 상속세법: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현행	조정
1인당 자녀공제 금액	5000만 원	5억 원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공제 금액	2억 5000만 원 또는 5억 원 (일괄공제 유리)	7억 원 또는 5억 원 (기초+인적공제 유리)

* 일괄(5억 원), 배우자(5억~30억 원, 법정 상속지분 한도) 공제 현행 유지

자료 기획재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이뤄진다.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된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돼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상속세 부담 낮춰 조세체계 합리화

이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국민 자산 증가세에 맞춰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이후 25년 만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과표별 10~50%인 세율은 10~40%로 낮아진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 세율이 부과되던 과표구간도 없애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일괄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린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법상 유명무실하던 자녀공제의 실효성을 살린 것이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에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있다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 5억 원과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 10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한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속세액은 줄어들어 기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시행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연기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현행	개정안	
		일반투자형 ISA	국내투자형 ISA(신설)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	연 4000만 원(총 2억 원)	
비과세한도	200만 원 (서민·농어민 400만 원)	500만 원 (서민·농어민 1000만 원)	1000만 원 (서민·농어민 2000만 원)
한도초과분	9% 분리과세	9%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제한	가입 제한	가입 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자료 기획재정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는 7월 25일 상속세제 개편을 포함한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 뉴스시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0%까지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도 마련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

품과 서비스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4000만 원에 판매하는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000만 원에 구입하면 할인 금액인 1000만 원 중 시가의 20%인 80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됐던 방안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에게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생애 1회에 한정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도 확대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결혼 가구에 주택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납입액을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한다. 여기에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3월 5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

다. 근로자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2년 내에 최대 2회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 40만 원으로 늘린다.

중견기업 규모 업종별로 조정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투자·고용 등을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등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시행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가분'으로 보는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증가분은 4%,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증가분은 3% 공제되고 있었다. 이를 10%로 올린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의 규모를 업종별로 달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3000억 원,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에는 5000억 원이다. 이를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준의 3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운수창고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이 800억 원이므로 매출액 2400억 원을 올린 기업이 중견기업이 된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600만 원**
4000만~1억 원 이하: 300만 원→**400만 원**
-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 완화**
총급여 7000만 원→**8000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허용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류 관련 제도 개선

자료 기획재정부

제 등을 제외한 근로자 혹은 기간제 중 고용기간이 1년 이상, 단시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계속고용과 탄력고용 개념으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통상 근로자가 포함되고 탄력고용에는 1개월 이상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전체가 포함된다. 혜택은 다르게 적용된다. 계속고용의 경우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한다. 탄력고용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해 자본시장 활성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가 신설된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직전 3년 평균값에 비해 주주환원금

계속고용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방법이 있다.

유턴기업

인건비가 저렴했던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부부 1인당 5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납입액(300만 원 한도) 40% 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각각 1주택 보유 남녀 혼인 시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 확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최대 80%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 공제금액 10만 원 상향
첫째: 15만 원→25만 원 / 둘째: 20만 원→30만 원
셋째: 30만 원→40만 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2024년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액이 5%를 초과하면 증가분에 대해 5%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14%에서 9%로, 종합과세자 세율은 최고 45%에서 25%로 낮춘다.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해외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범위도 수정된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려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그동안 리츠는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평가손실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평가손익은 제외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과 배치된다.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리츠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자산의 평가손익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승계 지원 위해 기회발전특구 기업상속세 0원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담겼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이란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 120% 이상인 기업이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과 증가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5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300억~600억 원에서 600억~12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기업은 한도 없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는 폐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을 고려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최대주주의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60% 세율로 과세하게 돼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대상 (2023년 기준 1만 3000여 개)
- 체육시설 이용료 대상(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
-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 원)에 포함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연 3800만 원 → 4400만 원 확대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경력단절자 요건, 남성까지 확대
- 기존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 폐지

자료 기획재정부

돼왔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운기업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현재 해운기업은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 등을 고려한 톤세를 내고 비해운 소득에 대해서만 일반기업과 같은 법인세를 낸다. 이 톤세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도 톤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005년 도입됐다.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도 나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자가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23년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창업주가 현금이 부족해 보유 중인 회사 구주를 현물 출자해 복수의결권 신주를 받을 경우 이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창업주가 구주를 회사에 팔아 차익을 올리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정비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각종 비과세·감면 정책은 정비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신용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된다. 현재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만큼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

는 공제율을 1.3%에서 0.65%, 20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전자신고율이 종합소득세의 경우 99.5%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신고 비율이 50%에 머물러 있는 양도소득세 세액공제는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 소득세가 4557억 원, 법인세가 3678억 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제도.

앞에선 정상외교 뒤에선 비밀 특사 체코 원전 24조 신화 뒤엔 세일즈 외교·팀코리아 있었다

7월 17일 저녁 8시 5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됐다”며 책상을 내리쳤다고 한다. 곧이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TV 생중계로 온 국민에게 전해졌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원

전 수출의 의의와 그간 윤 대통령이 각종 외교 무대에서 펼쳤던 원전 세일즈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환호 소리가 요란했다. 체코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코 내각의 발표를 지켜보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국”을 호명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주요 간부들이 7월 17일 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현지 발표 방송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순간 “만세”를 불렀다. 안 장관은 치열했던 수주전을 치른 직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 마련된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상황실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왔다. 체코 내각의 발표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황주호 사장과 한수원 직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같은 시간 체코 현지 주체코 한국대사관도 축제 분위기였다.

체코 정부가 7월 17일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한수원이 경쟁업체보다 가격과 체코 기업 참여 등 모든 기준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로 수주전에 뛰어들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최종 경쟁을 벌였다.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비 규모는 24조 원으로 추산되며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2029년 공사가 시작된다.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이번 수주 성공으로 상업용 원전 본산지인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와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7월 18일 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원전사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2022년 3월 체코 원전 입찰이 개시될 당시만 해도 유럽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팀코리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다”고 했

APR1000



한국형 원자로 노형인 ‘APR1000’에서 숫자 1000은 설비용량이 1000메가와트(MW)라는 뜻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급 노형인 APR1400보다 설비용량은 작지만 설계수명, 가동률 등은 동일하다.

윤 대통령,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

“원전 수주 감사 친서…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체코 원전 특사로 파견했다. 특사단은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 실장과 안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이 1박 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1박 3일 일정으로 체코에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친서에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체코 총리 면담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실무진 3명이 동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원전 외에 다른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체코를 방문한 대통령특사단장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월 24일(현지시간)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대한민국 1호 영입사원’을 자처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런 세일즈 외교 전략이 주효했다.”

다. 또 “안정적인 원전정책으로의 전환과 윤 대통령이 주도한 정상차원의 세일즈 외교는 발주국의 신뢰를 이끌어낸 핵심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대한민국 1호 영입사원’을 자처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런 세일즈 외교 전략이 주효했다.



정상 외교·비밀 특사… 투 트랙 전략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총회를 비롯한 여러 외교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

7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막판 수주전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원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우리나라가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 납기 준수나 건설 비용 등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당시 UAE에는 원전 전문가가 3명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2000명으로 늘었다는 설명도 했



다고 한다. 한국이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물밑에선 보다 치밀한 수주전이 펼쳐졌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 안 장관을 ‘비밀 특사’로 체코로 보냈다. 안 장관은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피알라 총리를 만나 ‘원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담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안 장관은 올해 4월 이후에만 세 차례 체코를 방문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체코 정부를 설득했다.

결국 체코는 7월 17일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체코 정부는 공식 발표에 앞서 한국 측에 ‘하라인’을 통해 먼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타임 워런버짓’ 전략

체코 원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뭉친 ‘팀코리아’는 체코 정부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보냈다. 지리적으로는 체코와 가까운 프랑스가 유리하지만 한국은 지난 수십 년째 꾸준히 원전을 건설·가동·유지하고 있는 점과 원전 수주 후에도 말을 바꾸지 않고 반드시 기간과 예산을

체코 원전 수주 외신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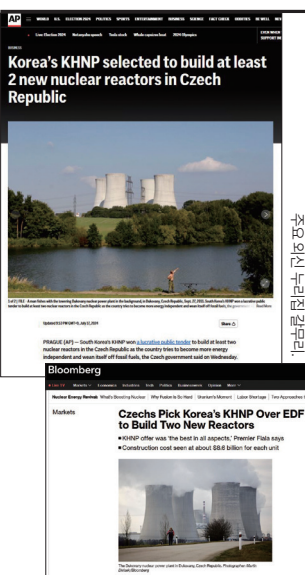
“한수원 제안 압도적” “정상외교 성과” 보도 이어져

체코 정부가 7월 17일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는 소식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7월 18일 미국 AP통신·블룸버그통신, 프랑스 AFP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 등이 한국의 원전 수주 소식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특히 한수원의 제안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팀코리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끈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이번 성과를 거두게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유와 관련,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7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서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낙찰자(한수원)는 프로젝트 비용 및 전체 일정 관리 측면에서 더욱 안정적인 보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두코바니 원전 주변 지역인 트르제비치 상공회의소는 한수원에

대해 “원전 건설 계약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최상의 실적을 가졌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란 성명을 채택했다. 트르제비치 시장도 그간 한수원의 지역 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수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한수원이 체코 중앙정부뿐 아니라 두코바니 원전 건설부지 주변 지역인 트르제비치에서 8년 동안 지역 공헌 사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지역 사회의 지지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과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도 주목했다. 윤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부흥 정책으로 원전 산업 경쟁력이 향상됐고 또 원전 수출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이번 원전 수주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체코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에 대해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호소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주요 외신 누리집 클리핑



**팀코리아,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주계약)은 한전기술, 두산에너지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업무 전체 일괄 공급 예정

- ✓ UAE 바라카 원전 수주(2009년) 이후 15년 만의 쾌거
- ✓ 상업용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및 원전 최강국 도약 전기 마련

체코 원전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를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 건설 사업**

✓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

*두코바니 5·6기는 확정, 테를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

총 예상 사업비

✓ 1가: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 원)

✓ 2가: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온타임 위딘버짓(on time & withi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적기 시공)’ 전략이다.

팀코리아는 정해진 예산으로 공사 기간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으로 세계에 익히 정평이 나 있다. ‘공기 지연’은 곧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대형사업 수주전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UAE 바라카 1~4호기, 국내 새울 2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 등 최대 9기의 원전을 동시에 적기 건설한 경험도 있다. 반면 프랑스는 핀란드에 지은 올킬루오토 3호기가 예정보다 13년 늦게 전력을 생산했고 2007년에 짓기 시작한 자국 내 플라망빌 원전은 아직도 완공되지 못했다.

높은 기술력 대비 저렴한 가격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했다. 한수원이 이번 수주전에 내세운 ‘APR1000’ 모델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건설 단가다. 건설 단가가 9조 원 안팎인 APR1000은 15조~16조 원으로 예상되는 프랑스의 ‘EPR1200’ 모델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계원자력협회

(WNA)의 조사 결과를 봐도 2021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단가는 킬로와트(kW)당 3571달러로 미국(5833달러), 프랑스(7931달러) 등 경쟁국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200명에 가까운 체코 전문가는 한수원이 EDF보다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내각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 단가 경쟁력은 물론 시공 역량, 기술 이전 공약 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팀코리아, 전방위 지원

체코 정부와의 신뢰를 쌓는 데도 힘을 쏟았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산업부 고위직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 오전 6시 30분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전 5시 30분부터 가서 기다렸다. 그 일로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좀 얻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취임 이후 총 일곱 차례 체코를 방문해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원전 건설 역량과 사업참여 의지를 피력해왔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 예정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

- ✓ 중동에 이어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

원전 10기 수출 목표(~2030년) 달성의 강력한 모멘텀

향후 제3·4 원전 수출로 이어갈 가능성 높임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 ✓ 양질의 수출 일감 대량 공급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 기대

향후 추진 계획은?

계약 협상 등 후속조치 철저 이행

- ✓ 한수원 중심 '협상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해 협상에 만전
- ✓ 정부도 민간과 보조 맞춰 지원 한층 강화

원전 수출 전략 고도화

- ✓ 수출 유망국과 협력 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 추진
- ✓ 원전설비 수출 병행 → **종합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
- ✓ 원전수출 장기비전 제시 및 관련 지원체계 강화

원전사업을 매개체로 체코와 협력의 폭·깊이 확대

-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 ✓ 유망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를 바탕으로 아이스하키팀 후원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도 해왔다.

팀코리아 소속 대우건설과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팀코리아 일원인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도 같은 달 체코 현지에서 '한·체코 원전건설 포럼'을 열고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백 사장은 원전이 들어설 예정인 두코바니 지역을 찾아 현지 지역민 고용과 지역 경

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힘을 보탰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체코·한국 원전건설 포럼'을 개최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알렸고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보유한 두산그룹은 같은 달 체코 현지에서 원전사업 수주 지원 행사인 '두산 파트너십 데이'를 열었다. 이를 통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K** 강정미 기자

한·체코 26년 만에 운수권 확대 합의

'원전 수주' 체코 하늘길 넓어진다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하늘길이 26년 만에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7~18일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운수권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협의로 규모가 결정된다. 한국과 체코 간 운수권은 1998년 이래 주 4회로 유지되다가 26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나게 됐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기업 100여 곳이 진출해 있다. 체코 신규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때를 같이해 열린 이번 항공회담은 팀코리아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도 허용해 여행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으로 이동 하더라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 발권하거나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공편 증대는 항공사 신청 이후 결정된다. 현재는 우리 측 항공사만 주 4회 운항하고 있다. 체코 측 항공사는 2013년부터 7년간 운항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이후 운항을 중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뿐 아니라 원전 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망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 행복입니다

유연근무로 방학 중 자녀 돌봄 해결!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의 방학은
큰 걱정이다. 학교 돌봄과
'학원 뺑뺑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그럴 경우 아이에게 방학다운
방학은 없어진다. 마음이 찢해진다.
유연근무제로 '진짜' 여름방학을
보내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맞벌이 부부에게 무서운 방학 이젠 행복한 방학이 됐어요”

“두 아들이 여름방학만 기다렸어요”

강원테크노파크 반도체육성팀 김성하 부장의 두 아들은 이번 여름방학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인 첫째는 하반기 바둑대회 출전을 앞두고 맹연습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 5월 춘천시바둑협회가 주관한 바둑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을 거머쥐었다. 태권도 1품인 초등학교 2학년 둘째는 발차기를 마스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스피드발차기 대회’ 수상 경험도 동기부여가 됐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취미활동을 하기에 방학만한 때가 없다”면서 신이 났다. 김 부장은 “방학은 아이들이 혼자 학원에 가는 기간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방학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겠다는 다짐을 옆에서 응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모두 유연근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과 근무시간선택형으로 나뉜다.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조정 가능하고 필수 근무시간대 지정으로 주중 근무시간 총량에 맞춰 일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

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큼니다. 특히 방학 때는 일정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불확실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령 학교 돌봄에 나이 제한이 있거나 혹은 돌봄센터와의 거리 문제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처럼요. 그럴 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직장에서의 유연근무제입니다.”

김 부장은 유연근무제로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방학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유연근무제가 없는 조직이 있다면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유연근무 없었다면 승진도 육아도 불가능”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이윤경 씨는 지난 5월 관리자급으로 승진해 매일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씨는 회사에서 약 스무 명의 팀원을 이끄는 부지점장이면서 집에서는 만 5세, 4세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엄마다. 사내에서 ‘갓생맘’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는 “유연근무가 없었다면 승진도 육아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승진 당시 과연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유연근무로 주



1 김성하 씨는 “방학은 아이들이 혼자 학원에 가는 기간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2 이윤경 씨는 “유연근무제가 없었다면 승진도 육아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3 문정우(가명) 씨는 “아내와 일주일에 이틀씩 번갈아가면서 재택을 해서 아이 방학 기간도 안심”이라고 했다. 사진 본인 제공

3일은 출근시간을 두 시간 늦출 수 있었어요. 물론 유연근무라고 해서 회사가 일을 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육퇴(육아퇴근)’ 후 팀원들과 줌미팅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 남은 업무 처리를 해야 하지만 평일 오전 시간은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이점이지요.”

맞벌이인 이 씨는 남편과 번갈아가면서 유치원생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하원은 정부 지원의 아이돌봄 서비스로 해결한다. “유연근무와 아이돌봄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 중”이라는 이 씨는 “7월말 예정돼 있는 1주일간의 유치원 방학 때는 아이들의 조부모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을 보고 물놀이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2회 재택근무, 아내 얼굴에 웃음꽃”

중견 정보기술(IT)기업의 디자이너인 문정우(가명) 씨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뒀다. 문 씨는 “일 년에 두 번, 아이들의 방학은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우리 부부는 코로나19 이후 본격 도입된 재택(원격)근무로 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택근무 덕에 아이들 아침까지 직접 차려준다.

“아이들 밥 챙겨주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출근 완료입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대중교통 속 고통 없이 오전 근무를 마치면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점심식사도 할 수 있어요. 사무실이었다면 나른한 오후 커피타임, 회의실 이동 등으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시간도 재택근무에서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이들은 자유로운 재택이 가능하네 아내와 번갈아 한다면 방학에도 안심이지요. 아내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어요.”

업무가 빨리 끝나는 날엔 저녁을 먹기 전 집 앞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을 친다. 배구에 폭 빠진 둘째와는 토스 연습도 한다. 간식 시간엔 쿠키나 핫케이크를 함께 굽고 저녁 후에는 애니메이션 시청도 같이한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며칠간 시골에 있는 할머니댁에도 다녀올 계획이다. 문 씨는 “곤충 채집을 하고 개울에서 작은 물고기도 잡을 것”이라면서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밤낚시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기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면서 “육아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출산·육아 장려를 위한 국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해요.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구성해주면 어떨까요? 동아리 같은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해 성과가 있는 경우 대입이나 개인 진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아 걱정 덜었더니 업무 효율성 증가

문 씨는 고용노동부가 7월 11일 발표한 ‘방학기간 유연근무 활용 경험 공유 이벤트’ 최우수 사례자다. 고용부는 방학을 앞두고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공모에는 총 170명이 참여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방학 때 육아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다. “방학만 되면 육아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이 혼자 집에 두고 밥 차려 놓을 테니 먹으라고 하기는 날도 덥고 위험해 보인다”, “하루 종일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저녁에 집에 오면 TV와 게임에만 빠져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사례에는 이 같은 걱정을 유연근무를 통해 극복한 다양한 경험담이 나왔다. 유연근무로 육아 걱정을 덜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증가했고 아이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가족 간 관계도 크게 개선됐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유연근무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출근시간 조정, 재택근무 일주일 등 다자녀 직원을 배려한 사례도 있었다. 네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사례자는 “남편과 엄마의 도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유연근무”라면서 “유연근무가

없었다면 경력단절로 힘들게 얻은 직장을 또 다시 그만두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작은 직장이라 인력이 부족해 유연근무는 생각도 못했는데 회사에서 방학 때는 재택근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해줬다”는 사례자도 있었다. “아이들이 방치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 인사팀과 상의한 끝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사례처럼 회사에 적극적으로 사정을 피력한 경우도 있다.

두 아들을 둔 워킹맘은 “방학 중 아이들은 집에서 삼시 세끼를 먹어야 하는데 오전만이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아침, 점심을 챙겨줄 수 있고 퇴근 후에는 남편과 육아를 분담할 수 있으니 걱정이 해결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

초저출생 위기 속 일·육아 병행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방학 시즌 일하는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적극 지원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정부도 장려금·인프라·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유연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육아 병행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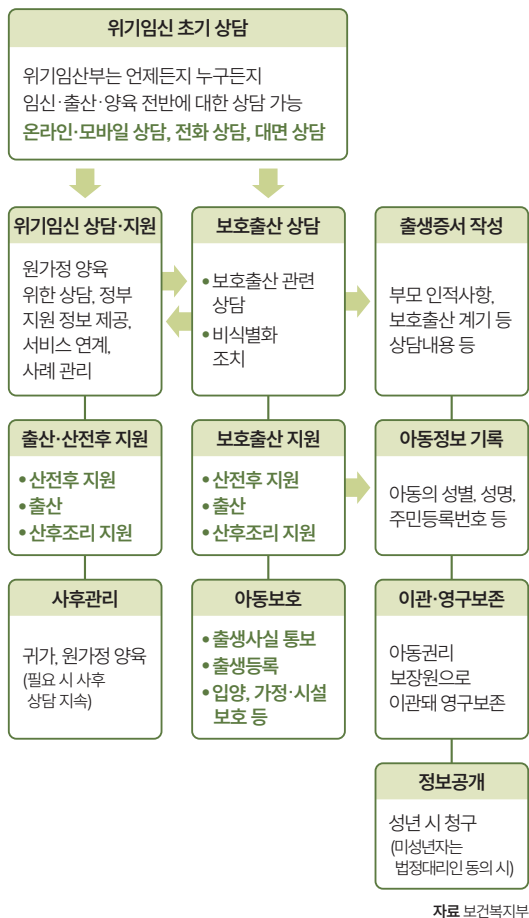
정부가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근로자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들에 금리우대, 근로감독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7월 17일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병원서 출생 자동 등록... “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 체계



정부는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 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제도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신청 후에도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이 제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정부는 임신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16개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동시에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과 등 의료 지원, 임신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도 연계돼 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부라면 긴급 출동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면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진행한다고 밝힌 이 사업은 종전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전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정지표에는 유연근무 도입 여부와 활용률,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연차휴가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근로시간 단축 및 초과근무 감축 노력, 휴가 사용 촉진 노력 등이 포함된다.

앞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

계부처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늘리기 위한 육아기 유연근무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며 실제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급하는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K]

박지현 기자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

“전공의 복귀 저해 불법행위 엄정 조치”

9월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됐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7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결정했다. 인턴 2525명, 1년 차 레지던트 1446명, 상급년 차(2~4년 차) 레지던트 3674명이다. 지원자들은 7월 31일 오후 5시까지 지원병원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복귀한 전공의들이 차질 없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7월 8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군미필 복귀 전공의들의 수련이 끊이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온라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7월 18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58차 회의에서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경찰에서는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에 대해 특정을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열

린 태도로 임하고 있다. 김 반장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총 13명의 수평위 위원 중 전공의 위원이 2명인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7월 2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부담 줄이는 배상보험 도입 검토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3개월간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 수급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7월 18일 개최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일차의료

보통 한국에서 일차의료란 환자가 처음 만나는 의료기관,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환자의 건강자원을 꾸준히 관리하는 주치의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임상의로부터 받는 의료서비스를 통칭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7월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의 모집 관련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 뉴시스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했다.

이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당사자간 시간적·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경우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의사 단체가 주도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것과 함께 일본의 배상보험에서는 미용 목적의 비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사고 보상은 제외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전문위원회 차원의 쟁점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도 개최됐다. 일차의료 확립되지 않은 우리 의료환경에서는 만성 질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아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 인력양성 방안, 팀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 의료 취약 지역 일차의료 제공 방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 반장은 7월 2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연극 ‘열 번째 봄’ 연출한 탈북민 출신 오진하 감독

“무대 위에서 남북의 벽을 없애는 것이 내가 할 일”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체험팀 예술감독, 오진하 감독이 건넨 명함에 적힌 직함이다. 2003년 탈북 후 한국에 최종 정착한 그는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매일 출근하며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남북문화 공감 및 확대와 관련된 강연과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감독’이라는 타이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가장 주된 업무는 공연 등 예술과 관련된 활동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함께 제작한 연극 ‘열 번째 봄’의 연출을 그가 맡았다.

‘열 번째 봄’은 오 감독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

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20대 여성 주인공이 등장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공연은 총 네 차례(3월 30일, 6월 22일, 9월 21일, 12월 7일) 선보이는데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두 번째 공연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함께 연극을 관람했고 탈북 예술인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정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유의미한 자리를 가졌다. 오 감독 역시 자리를 함께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창작예술분야 지원에 힘을 써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오 감독이 탈북 예술인, 그중에서도 창작예술분야 종사자에게 관심을 쏟는 배경에는 그가 걸 어온 길이 있다. 1964년생인 오 감독은 평양연극영화대학 출신으로 북한에서 배우 생활을 10년 정도 했다. 연극연출에 뜻이 있던 그는 2003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이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협력의 공간으로 2020년 5월 13일 개관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강좌와 문화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작품 전시 및 공연, 남북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원, 남북주민 자원봉사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및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누리집 uniculture.unikorea.go.kr

하루



오진하 감독은 연극 '열 번째 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합문화선

년 해외 단기 파견직으로 중국 출장을 갔고, 기간이 만료된 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학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한국행을 선택한 그는 명지대 공연예술학과를 졸업, 예술감독으로서 삶에 충실하고 있다. 연극 '풍계리 진달래', '자강도의 추억', '그곳에 봄이 오면' 등과 뮤지컬 'Until The Day'가 그의 연출작이다. 오 감독은 영화 미술감독과 조감독 및 배우로도 참여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연극 '열 번째 봄' 질문부터 하겠다. 20대 여성이 주인공이니 본인의 경험담은 아닐 테고 어떻게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내가 목격한 이야기다. 대본을 쓰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현장 취재를 다니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다. 작품 속 주인공은 여성이고 20대고 혼자다.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겠나. 그걸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극복해낸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연극을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했겠다.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와서 봤다. 그들은 아직 한국 사회를 잘 모른다. 주로 드라마만 봤으니까 대단히 환상에 젖어 있었는데 '열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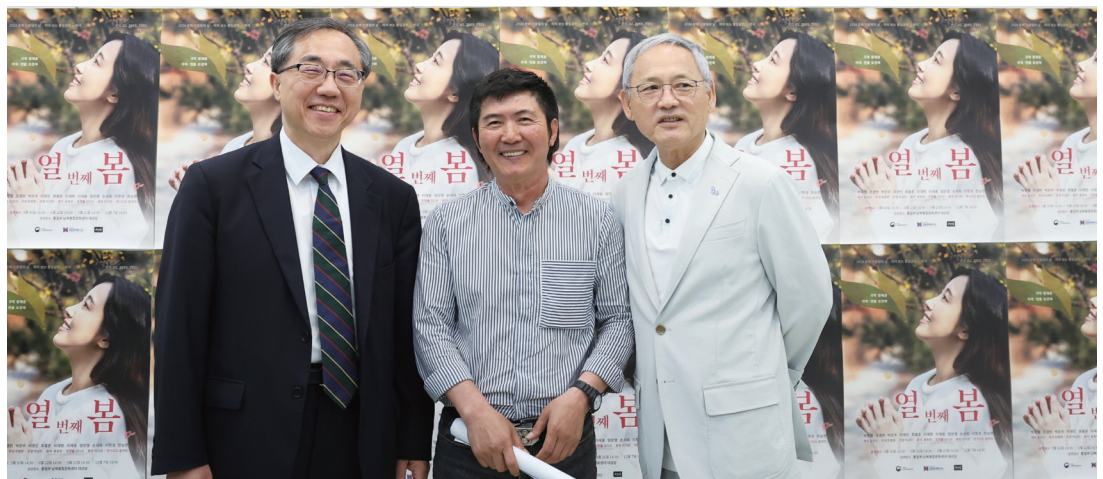
봄'을 통해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느꼈다고 하더라. 교육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노력하면 다 이뤄진다'는 가르침보다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 긍정적인 면만 보다가 현실에서 폭 쓰러진다. 어느 정도 마음의 다듬이질을 해서 나와야 한다.

경험담인가?

그렇다. 처음 연극을 기획할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나는 반대했다. 한국을 포함한 어디든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현실을 반영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대신 이번 연극에는 비속어가 없다. 모든 욕두문자를 제거했다. 북한에서는 작품에서 비속어를 못 써서 화를 내야 할 때는 연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번 작품에서 그렇게 해봤다.

어떤 소신이나 의도를 갖고 작품을 연출하나?

남북문화 공감과 교류의 목적이 관객에게 '우리는 결국 같이 살기 힘들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제대로 알고,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고 오롯이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북한 주민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월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오진하 감독이 연출한 연극 '열 번째 봄'을 관람한 뒤 문승현 통일부 차관, 오 감독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오진하 감독이 연출한 연극 '열 번째 봄' 공연 장면.

“북한 소재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1년에 30편은 제작되는 것 같다. 시나리오 감수 요청을 받는데 안쓰러운 감정이 들 때가 많다. 열성은 있는데 북한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을 조금 코믹하게 그리는 것 같다. 가령 “식사했 습니까?”라고 말하는데 북한에 그런 말은 없다. 간부가 나오면 차렷 자세를 하는데 그것도 틀렸 다. 예의는 갖추지만 모두 평등한데 그런 식으 로 오인된 경우가 많다. 많은 동질성을 덮어두 고 작은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작품을 만드는 것 이 안타깝다. 북한이탈주민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역할이 중요해보인다.

북한 소재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1년에 30편 은 제작되는 것 같다. 시나리오 감수 요청을 받 는데 안쓰러운 감정이 들 때가 많다. 열성은 있 는데 북한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 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창작예술분야 지원에 힘을 써달라고 목소 리를 냈다.

창작활동을 원하는 학생이 많다. 그런데 작가, 연출 등 창작활동에 첫발을 디딜 제도적인 시스 템이 아직 없다.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창작예술인은 나를 포함해 네 명이다.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위해서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장에서 활동한다. 북

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성이나 형태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생존이 아닌 창작예술분야라는 게 신박하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다. ‘너는 누구고 무슨 이유로 왔니?’라고 물어보면 20년 전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배고파서 먹고살기 위해서’ 혹은 ‘자유를 찾아서’다. 지금은 아니다. ‘좀 더 사 람답게 살아보자’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는 생각으로 온다. 예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 한 사회에 정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취 업, 두 번째는 생활환경과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지금은 중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달라졌다. 나름대로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남은 경력자들이다.

북한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과거에는 지역별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다. 평양과 그 외 지역이 문화권과 비문화권으로 나 뉘었다.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감정적 인 유통이 되는 것 같다. 지방 친구들이 평양에 서 유행하는 것을 시간차 없이 공유한다. 자신 의 시간을 만들어서 장사꾼들과 거래해야 나와 내 가족이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역별 차이는 많이 사라졌다.

남북문화 교류를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북한에서 배우 생활을 10년 정도 했다. 북한 인 물 배역을 맡은 배우들을 가르칠 때 완벽한 북 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북한 출신 배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위한 연기 육성을 하고 싶다.

연출가로서의 목표는?

한 작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작품이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 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고 싶다. 북한 관련 소재 작품들을 보면 너무 황당한 내용이 많은데 북한 공연예술과 한국 공연예술을 다 경험해본 나에 게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웃음). **K**

임연영 기자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에 있다

“스마트팜은 지금의 농업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것이다. 잠재력이 큰 ICT 농장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훌륭한 일터를 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지구온난화가 농업을 미래 최고의 직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명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농업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촌의 땅은 사막화돼가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 식량난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농촌의 고령화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위기의 농업 현장,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제시 국내 첫 스마트팜 혁신밸리 건립

미래의 농업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는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은 ICT를 접목해 작업 효율을 높인 ‘지능형 농장’이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축사 등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 자동으로 온도·습도·햇빛·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분석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들고 언제 어디서든 농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로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전통적인 농법에서 벗어나 과학적 농법으로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특히 전북 김제평야의 광활한 들녘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변신 중이다. 스마트팜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핵심 과제 중 하나다.

1970년대만 해도 김제는 인구 20만 명이 넘었고 최대 곡창지대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다 산업화에 밀려 인구 8만 명의 중소도시로 전락했다. 지금은 스마트팜과 종자·종묘 산업으로 농업 분야의 르네상스를 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토지 면적이 넓지 않아 귀농한 청년들이 빠르게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김제시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말 백구면 월봉리 일대 21.3헥타르(ha) 부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건립했다.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네 개의 시설이 핵심이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스마트팜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예비 청년 농업인을 길러내는 교육시설이다. 매년 전국에서 50여 명의 청년 교육생(만 18~39세)을 선발해 20개월 동안 스마트팜에 특화된 이론과 실습 등을 국비로 진행한다.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팜 설치 비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이다. 예비 청년 농업인이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최장 3년간 임차해 재배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10개 팀, 30명 안팎의 청년 농부들이 입주해 토마토, 딸기,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 올해 1월 청년창업보육센터에 따르면 이들의 연매출은 15억 원 안팎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대형마트와 공판장 등을 통해 판매된다.

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실증단지에는 1.6ha 면적에 유리온실 20개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 21개 기업이 입주해 농업용 로봇과 드론, 신품종, 기능성 물질 등을 스마트팜에 적용하면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의 경우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영농의 꿈을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지자체로서는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농장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센터에서는 혁신밸리 안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생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크게 늘릴 수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또 빅데이터는 청년 농부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 김제시는 현재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두주자는 네덜란드, 농사 99%가 스마트팜

스마트팜의 선두주자는 단연 네덜란드와 일본이다. 네덜란드는 다양한 ICT를 접목해 전 세계의 스마트팜 시장을 이끌고 있다. ‘농업의 95%는 과학기술이고 나머지 5%만이 노동력’이라고 믿는 이 나라는 전체 온실의 99%가 유리온실이다. 이미 1977년부터 온실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온도, 습도, 일사량,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하는 ICT와 에너지 관리 및 재해방지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에서 소비되는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80%가 이 시스템을 갖춘 식물공장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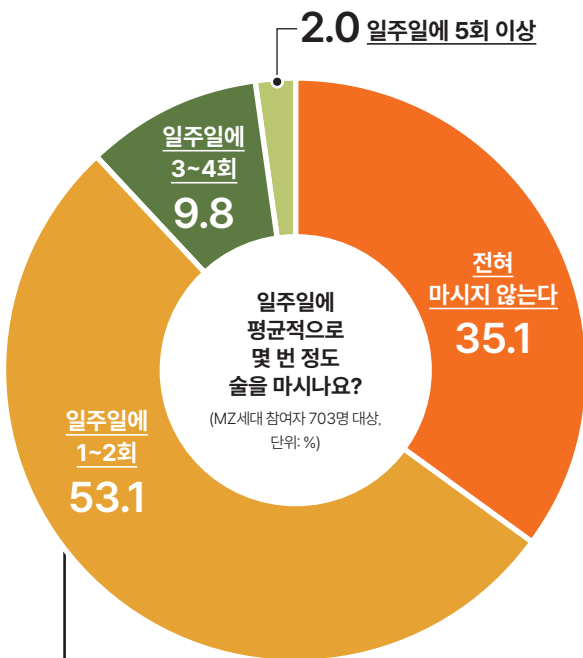
스마트팜 강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첨단 유리온실. 사진 V&V Group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농업에 ICT를 융합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로 휴경지 증가 및 농가소득 감소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농가에 ICT 보급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팜 종합패키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스마트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는 식물공장이다. 식물공장은 노지에 비해 위생적이고 세균 수가 적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또 자연재해 영향 없이 수확량이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스마트팜이 농업 종사자나 청년층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스마트팜의 단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전망이 밝다. 세계의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18년 75억 달러에서 2023년 135억 달러에 이를 만큼 빠르게 성장 중이다. 국내 스마트팜 면적도 2017년 4010ha에서 2022년 7000ha로 늘어났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팜은 지금의 농업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것이다. 잠재력이 큰 ICT 농장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훌륭한 일터를 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지구온난화가 농업을 미래 최고의 직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K**

“일주일에 1~2회 술 마셔요” 53.1% “술 마신 다음 날 후회” 76.8%



MZ세대 참여자 703명의 대답은?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나요?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나요?



요즘 회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음주 문화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하이볼’이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제품 출시가 줄을 잇고 위스키를 구입하기 위해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해요. 술을 즐기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MZ세대의 음주 문화와 술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어요.

“친구, 또는 직장 동료와 일주일에 1~2회 술 마셔요”

먼저 MZ세대에게 일주일에 평균 몇 번이나 술을 마시는지 물었더니 ‘일주일에 1~2번’이 53.1%로 가장 많았고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5.1%에 달했어요. 그만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겠죠? 술을 마실 때 누구와 마시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연인과 마신다’가 64.2%로 나타났어요. ‘혼자 마신다’는 답변도 11.6%인 것을 보면 ‘혼술’이 음주 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여요.

MZ세대는 술을 왜 마실까요? ‘그냥 즐기기 위해(329명)’, ‘사회적 활동(친구·동료와의 만남, 259명)’, ‘스트레스 해소(200명)’ 순으로 꼽았어요. 주로 즐겨 마시는 술은 ‘맥주(360명)’가 가장 많았고 ‘소주(245명)’, ‘와인(178명)’, ‘위스키(154명)’가 그 뒤를 이었어요.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와인과 위스키를 선택하는 MZ세대가 많다는 것은 주종 선택에서도 취향을 찾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MZ세대의 성향을 보여줘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MT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던 문화는 개선됐을까요? 관련 질문에 ‘억지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답이 53.8%에 달한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음주 강요 문화가 아직 남아

술을 마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MZ세대 참여자 703명 대상, 복수 선택 가능, 단위: 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상사나 선배가 술을 권하거나 동료·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음주보다 스포츠,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건강이 존중받는 문화가 더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음주 흑역사가 있을 텐데요. 술을 마시고 후회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76.8%의 설문 참여자가 '있다'고 답했어요. 그 이유로 '다음날 숙취와 피로' 때문이라는 대답이 60.9%로 가장 많았어요.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에는 62.7%가 '약간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고 '많이 영향을 받는다'가 18.9%,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가 1.3%로 무려 82.9%가 숙취와 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외에도 12.6%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써서', 10.2%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 술 마신 걸 후회한다는 답을 했어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음주량을 조절해야 할

어피티가 **703**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7월 5~11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Q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술을 마시나요?

-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2회
③ 일주일에 3~4회 ④ 일주일에 5회 이상

주로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시나요?(술을 마시는 456명)

- ① 혼자 마신다 ② 단체가 모이는 자리에서 마신다 ③ 가족과 함께 마신다
④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연인과 마신다 ⑤ 기타

술을 마실 때 주로 어떤 종류를 선호하나요?(복수 선택 가능)

- ① 맥주 ② 소주 ③ 와인 ④ 위스키 ⑤ 막걸리 ⑥ 칵테일
⑦ 하이볼 ⑧ 기타(직접 입력)

술을 마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복수 선택 가능)

- ① 스트레스 해소 ② 사회적 활동(친구·동료와의 만남)
③ 기념일 또는 축하하기 위해 ④ 그냥 즐기기 위해
⑤ 습관적으로 ⑥ 기타(직접 입력)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있다고 대답한 540명)

- ① 다음날 숙취와 피로로 인해 ②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써서
③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 ④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실수를 해서
⑤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생겨서 ⑥ 기타

술을 마신 다음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 ① 전혀 영향 받지 않음 ② 약간 영향 받음 ③ 많이 영향 받음
④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함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어떻게 조절하나요?

- ①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킨다 ②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③ 술을 천천히 마신다 ④ 물이나 음식을 함께 많이 먹는다
⑤ 조절하지 못한다 ⑥ 거의 마시지 않는다 ⑦ 기타

다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할 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술값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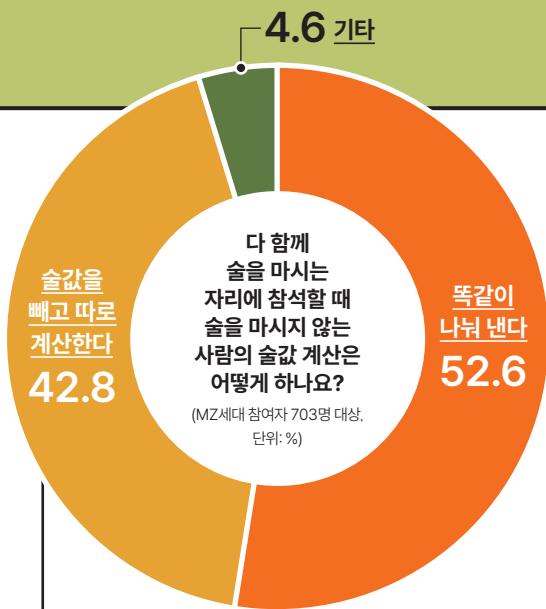
- ① 똑같이 나눠 낸다 ② 술값을 빼고 따로 계산한다 ③ 기타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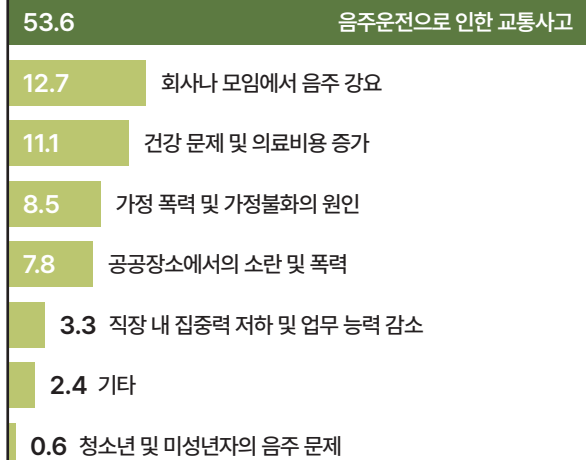
음주 문화로 인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② 가정 폭력 및 가정불화의 원인
③ 건강 문제 및 의료비용 증가 ④ 직장 내 집중력 저하 및 업무 능력 감소
⑤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음주 문제 ⑥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및 폭력
⑦ 회사나 모임에서 음주 강요 ⑧ 기타(직접 작성)



음주 문화로 인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MZ세대 참여자 703명 대상, 단위: %)



까요?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기’(30.4%), ‘물이나 음식을 함께 많이 먹기’(28.3%) 등의 방법을 통해 노력한다고 답했어요.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알고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술값’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술값을 어떻게 내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다보니 ‘술값’ 지불 방식이 논란거리로 떠오른 거죠. 모두가 똑같이 나눠 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왜 술자리에 오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즐기는 자리인 만큼 참석비의 일환으로 비용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 비싼 술값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비싼 술값을 나눠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평하게 각자 먹고 마신 만큼만 지불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대해 MZ세대는 ‘술자리 비용을 똑같이 나눠 낸다’ 52.6%, ‘술값을 빼고 따로 계산한다’ 42.8%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어요.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다는 Z세대 다영 님은 “사회생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똑같이 계산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 했고 M세대 미묘화 님은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애초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라고 말했어요. 술값이 유독 많이 나온 경우에는 따로 계산하고 아닐 때에는 상황을 봐서 같이 계산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어요.

‘음주운전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 53.6%

마지막으로 술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53.6%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어요. 해당 답변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어요.

M세대 엘알 님은 “음주운전은 개인이나 가족 문제를 넘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어요. 비슷한 의견으로 Z세대 리즈 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때문에 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가치관 개선이 필요한데 아직 이런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음주운전 외에도 ‘회사나 모임에서의 음주 강요(12.7%)’, ‘건강 문제 및 의료비용 증가(11.1%)’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어요.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음주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 필요해보여요. **K**

“화장품 사용 이렇게 하세요” 안전사용 교육 학교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션이랑 선크림이요.”

“저는 립밤 사용해요.”

7월 4일 서울 금천구 탐동초등학교 4학년 교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래소비자행동이 함께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이 진행됐다. 강사의 질문에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화장품을 하나씩 읊었다.

“로션, 선크림, 립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안할 때 쓰는 클렌징이나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

푸도 화장품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립글로스나 립밤과 같이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은 친구와 함께 써도 될까요?”

“안돼요! 나눠 쓰면 감기가 옮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눈과 입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친구와 함께 쓰면 세균이 옮겨갈 수 있어요. 화장품 판매점에서 테스트 제품을 쓸 때도 반드시 일회용 도구를 사용해야 해요.”

미래소비자행동 소속 전문강사가 화장품 사용법을 설명하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청소년기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다. 최근에는 색조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래소비자행동이 실시한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며 화장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색조화장품을 어린 나이부터 바르면 자극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찍 시작한 색조화장은 피부 착색과 손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화장품의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 피지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색조화장품 성분으로 모공이 막혀 피부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은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변질과 오염으로 인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청소년기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식약처가 나섰다. '청소년을 위한 색조화장품 안전사용법'을 마련하고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식약처가 교육에 나선 것은 2015년부터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2만 7324명을 대상으로 439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5월 30일 서울 신대림초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만 여명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교육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올바르게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 화장품 표시 사항을 통해 전체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

할 때 주의사항 등이다.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초·중학생은 게임과 퀴즈, 활동지를 활용하고 중·고생은 강의와 교재 및 영상을 이용해 교육한다. 중·고생에게는 손톱화장부터 눈화장, 두발용 화장품과 여드름피부용 화장품 사용법 등 좀 더 세분화된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중·고교에서는 색조화장품 사용법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쓴다. 색조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화장품을 구매하기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밀 등의 피부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색조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피부염, 기존 피부 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관리 등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50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어느 때보다 강사의 말에 집중했다.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내보이기도 하고 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화장품을 구입할 때 예쁘게 포장됐는지를 살피기 전에 내 피부에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 겉면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화장품의 사용법과 사용할 때 주의사항,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돼 있으니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듯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모두 이 표시제를 따르고 있다.

“청소년기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식약처가 나섰다. ‘청소년을 위한 색조화장품 안전사용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즈를 풀기 위해 앞다퉈 손을 들었다. 질문도 쏟아졌다.

“예쁜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건강한 피부예요. 내 피부에 안전하고 적합한 화장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피부와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알았죠?”

“네!”

강사의 당부에 아이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 누리집서 신청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 누리집(ed.can.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06-1372) 또는 메일(consumer12@can.or.kr)로 문의하면 된다. 반별 수업, 강당 수업 등 오프라인 수업과 함께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

서경리 기자

화장품 안전 사용법

① 손과 도구를 깨끗이

화장품 사용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화장품이 오염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② 사용 후 뚜껑 꼭 닫기

화장품에 습기나 먼지가 섞이면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 오염되기 쉽고 공기와 접촉되면 산화가 일어나 변질되기 쉽다.

③ 화장품 돌려쓰기 금지

화장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면 감염이나 오염될 위험이 있다. 특히 눈과 입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

④ 직사광선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다. 사용할 때마다 화장품의 온도 변화가 일어나 쉽게 변질될 수 있다.

⑤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기

개봉한 화장품은 되도록 빨리 사용해야 한다. 쓰던 화장품의 색상이나 향취 등이 변했다면 가차 없이 폐기한다.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법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늘임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 피부 표면에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는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고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피부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고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2시간 동안 입수와 자연건조가 반복돼도 SPF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말한다.

울릉도

해외로 왜 가? 다이빙 성지 된 울릉도 MZ들이 몰려온다



다이버가 공암(코끼리바위)의 좁은 틈새를 따라 수영하고 있다. 사진 임동하 수중 사진작가

파도가 만든 자연 동굴, 밀림 같은 원시림, 섬 가운데 봉긋 솟은 성인봉과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해안절벽. 울릉도는 그야말로 섬 전체가 자연의 보고다. 울릉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계절마다 색다른 비경은 그 수고로움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다. 특히 울창한 숲과 푸른 동해 바다의 변주가 눈부신 울릉도의 여름은 신비롭다. 흔히 울릉도 여행 하면 트레킹과 맛 기행을 떠올리지만 요즘 MZ 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울릉도는 프리다이빙의 성지로 꼽힌다. 아직 숨겨진 다이빙 포인트가 많아 дай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울릉도 바다의 매력은 사납고도 거친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수심이 깊고 물이 깨끗해 수중 가시거리가 넓다. 난류성 물고기와 수중생물도 풍부해 다이버들에게는 꿈의 바다다. 7월 초 강원 강릉항에서 출발해 2박 3일 일정의 울릉도 여행을 떠났다. 프리다이빙 체험이 주요한 일정이었다.

울릉도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묵호, 경북 포항시에서 여객선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 울릉도 도동, 사동, 저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편도로 평균 3시간이 걸린다. 서울에서 새벽에 나섰지만 강릉항에서 쾌속선에 오른 것은 오후 1시,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하자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둘러 학포야영장으로 향했다. 저동항의 반대편 서북쪽 학포마을에 자리한 캠핑장으로 학포마을 앞바다는 일몰 다이빙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울릉도에 입도할 때만 해도 거센 바람에 다이빙이 가능할까 걱정했지만 학포마을 앞바다는 거짓말처럼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ㄷ’자 지형이 파도를 막아줘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다이빙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슈트를 챙겨 입었다.

한여름 더위에도 수온은 20℃에 불과했다. 바다의 수온은 보통 초여름에 18~20℃, 무더위에 22~24℃까지 오른다.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즐기기에 초여름 날씨가 적당하다.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로 인해 물이 뿌옇게 바뀌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급격히 늘어난 해파리나 물벼룩에 쏘일 수도 있다.

수온이 낮은 만큼 3mm 두께의 전신 슈트를 준비했다. 수



울릉도 일주도로를 따라 달리다보면 거대한 기암괴석을 마주하게 된다. 사진 서경리

영복만으로도 입수할 수 있지만 자칫 물 온도가 낮아 저체온증이 오거나 기암괴석이 많은 울릉도 바다 특성상 몸이 굼힐 수도 있다.

오후 5시, 다이빙을 즐기기 전 일몰 시간을 확인한다. 여름 해가 길지만 일몰 후엔 바다가 어두워 위험할 수 있다.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드디어 울릉도 바다에 뛰어들었다. 학포마을 앞바다엔 빨소라가 지천이다. 수심 5m 내려갔을 뿐인데 삼각뿔 모양의 테트라포드 단면에 뿌리 내린 해초들이 파도에 일렁이고 그 사이로 빨소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제주도와 울릉도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빨소라는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전복과 비슷하다. 6월에서 9월 사이를 제외하고는 소량 채취도 가능해 다이빙을 즐기며 자연산 빨소라도 맛볼 수 있다. 해 질 녘 푸른 바다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일몰의 황금빛 빛 내림이 황홀경을 연출했다. 다이빙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와 붉게 물든 울릉도 바

다를 보면서 텀블러에 담아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바로 이 맛이! 감탄이 흘러나왔다.

울릉도 3대 비경... 삼선암·공암·관음도

야영지에서 눈을 뜬 다음날 아침. 텐트 뒤로 산봉우리를 따라 낮게 내려앉은 구름이 장관을 이뤘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구름이 걷혔다. 이 날의 일정은 울릉도의 3대 비경인 삼선암과 공암(코끼리바위), 관음도의 쌍굴 탐험. 이곳도 역시 다이빙 포인트다.

삼선암은 울릉군 북면 천부리 앞바다에 있는 세 개의 기둥 같은 암석으로 높이는 각각 107m, 89m, 58m에 이른다. 삼선암은 지상으로 노출된 세 선녀가 바위가 됐다는 설이 있다. 울릉도에서 물빛이 가장 곱기로 이름났다. 섬과 바위가 빚어내는 절경도 기가 막히다. 삼선암 부근의 수심은 7m에서 20m까지로 깊다. 거대한 세 개의 기암을



걸어서 울릉도를 즐기는 법



깎아지른 듯 해안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행남 해안산책로. 사진 서경리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성인봉(987.7m)은 형제봉과 미륵봉, 나리령 등 크고 작은 산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된 정상 부근의 원시림에는 섬피나무, 너도밤나무, 섬고로쇠나무 등 희귀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룬다. 도동항에서 대원사를 거쳐 팔각정으로 오르는 코스와 북쪽의 나리분지에서 신령수로 오르는 코스 등이 있으며 미륵봉을 오르는 코스도 인기다.

화산탄의 웅장함을 느끼고 싶다면 해안을 따라 걷는 길을 추천한다. 도동항에서 왼쪽 해안을 따라 걷는 행남 코스는 자연동굴과 골짜기를 연결하는 교량 사이로 펼쳐지는 해안 비경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행남 등대에 올라 저동항을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이다.

따라 유명하듯 떠가다보면 빨강·초록·갈색의 다양한 해초류가 дай버들을 반긴다. 호흡을 가다듬고 깊숙이 물속으로 빨려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때쯤 되면 슬슬 허기가 올라온다. 인근 마을 식당에서 홍합밥과 따개비 칼국수를 주문했다. 홍합살을 넣고 고슬고슬 갓 지어낸 밥에 김가루, 참기름을 넣고 비빈 다음 산나물과 함께 먹으니 별미가 따로 없다. 따개비 삶은 육수에 감자, 호박, 양파를 넣고 끓여낸 칼국수 국물을 한 수저 떠마시니 입안이 개운하다.

다음은 관음도다. 울릉도 북면 북동쪽에 있는 섬목 해변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다. 울릉도 부속 도서 중 세 번째로 크며 지대가 평탄한 무인도다. 지금은 육지와 섬 사이에 다리가 놓여 걸어서 갈 수 있다. 관음도는 팽이갈매기 서식지로 갈매기떼가 “꽹꽹” 소리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관음도에는 관음쌍굴이라는 두 개의 해식동굴이 있어 카약을 타고 굴을 관람하는 관광객이 많다.

코끼리바위라 불리는 공암은 물속에 코를 빠뜨리고 있는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다. 용암류에서 나타나는 주상절리가 바위 전체를 덮고 있어 코끼리의 거친 피부를 떠오르게 한다. 구멍이 뚫린 바위라는 의미에서 공암이라고 부르



- 1 갈색의 해초가 출렁이는 삼선암 인근 바다를 다이버가 헤엄쳐 지나고 있다.
 - 2 가까이에서 바라본 공암. 코끼리가 바다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 듯하다.
- 사진 임동하 수중 사진작가
- 3 울릉도의 별미인 홍합밥. 입안에서 씹히는 쫄깃한 홍합맛이 일품이다. 사진 서경리



는데 구멍 사이로 육지에 봉긋 솟은 송곳봉을 볼 수 있다. 다이버들에게는 은빛으로 빛나는 물고기떼와 함께 유영을 즐기기에 최적의 포인트다.

공암은 나리분지와 가까이에 있다. 시간이 있다면 나리분지로 산책할 것을 권한다. 나리분지는 동서 길이 약 1.5 km, 남북 길이 약 2km로 울릉도에서는 유일하게 평지를 이루고 있다. 나리전망대까지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어 걷기 좋고 울릉도 전통 가옥인 억새로 만든 투막집도 구경할 수 있다. 인근에 있는 나리촌식당에 가면 울릉도에서 나는 명이나물과 독특한 향과 맛의 나물을 넣은 산채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

자연이 만든 해식동굴

3일 차 아침.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 가재굴바위로 향했다. 울릉도 남면에 우뚝 선 가재굴바위는 동구미몽돌해변 가까이 자리한다. 주변으로 거북바위와 얼굴바위 등 거대한 기암괴석이 우뚝 서 위용을 자랑한다. 동구미항에서 방파제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면 굴이 나오는데 자연이 만든 어넨 동굴의 장엄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킁킁한 바닷속 동굴 입구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 마치 우주 한가운데 들어온 듯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이곳도 다이버들

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수면을 통과한 빛을 따라 물속 깊이 들어갔다 올라올 때면 숨이 차는 것을 잊을 만큼 황홀함을 안겨준다.

가재굴바위를 마지막으로 묵호항행 배에 몸을 실었다. 파도에 배가 좌우로 흔들렸다. 그 느낌이 가재굴바위에서 온몸으로 느꼈던 너울과 같아 마치 울릉도 바다 한가운데를 헤엄치는 듯했다. 아쉬움에 돌아보니 낮게 내려앉은 구름에 감싸인 울릉도가 한 점 섬으로 보였다. **K** 서경리 기자

울릉도 배편

울릉도에 당일 들어가는 것은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울릉도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뱃길인 만큼 해상 날씨를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울릉도 배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강릉, 동해(묵호), 울진(후포), 포항 등 네 가지로 그중 크루즈는 울진과 포항만 가능하다. 강릉과 동해, 포항에서는 쾌속선이 운항한다. 여객선 승선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하절기 소요시간(운항시간)

- 포항~울릉(도동) 2시간 50분(오전 10시 10분 출항)
- 포항~울릉(사동) 6시간 30분(오후 11시 50분 출항)
- 동해(묵호)~울릉(도동) 2시간 40분(오전 8시 출항)
- 울진(후포)~울릉(사동) 4시간 30분(오전 8시 30분 출항)
- 강릉~울릉(저동) 3시간(오전 8시 출항)

파리올림픽 기간 K-콘텐츠는 이곳으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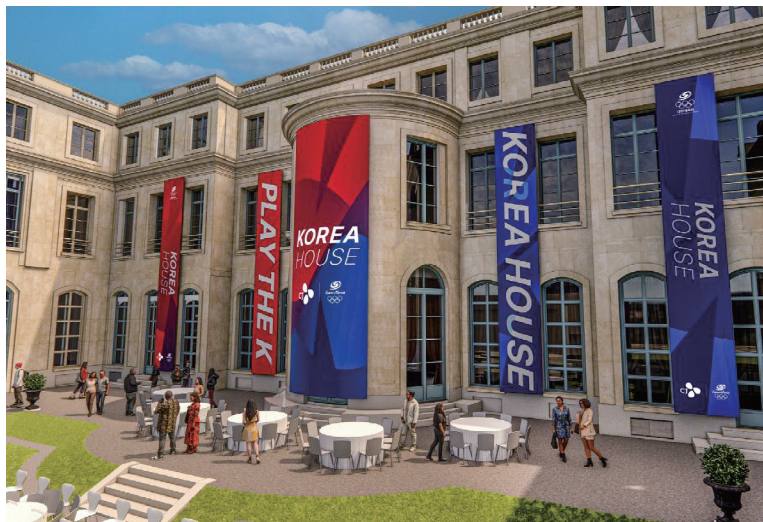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하우스' 개관

올림픽 열기로 가득찬 프랑스 파리 시내, 오륜기로 장식된 에펠탑 근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하우스'가 7월 25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운영하는 코리아하우스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돼왔다. 이번 파리의 코리아하우스는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가 열리는 8월 11일까지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을 아우르는 K-컬처 종합홍보관 역할을 하게 된다.

코리아하우스는 파리 7구의 메종 드 라 시미(화학의 집) 건물 전체를 빌려 운영된다. 대극장과 소극장 등 다양한 공간을 보유한 3층 건물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열린다.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K-팝,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K-팝 커버댄스와 비보잉 공연을 열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댄스 수업도 진행한다. 메이크업 시연과 함께 개인 맞춤 색상을 진단해주는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한국과 프랑스 청소년의 합동 무용공연인 '프로젝트 손'을 진행한다. 화합과 우정의 올림픽 정신을 주제로 펼치는 이번 공연은 안은미컴퍼니와 프랑스 비영리 무용단체 다포파(DaPoPa)가 함께 했다.



코리아하우스의 내부 정원 모습. 사진 이주식회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8월 1일 '한국의 날' 사전행사로 한복 패션쇼를 연다. 또 국립발레단은 발레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레를 소개한다.

상설 전시로는 한복·한지 등 전통문화·도예·미디어아트 전시 등이 있으며 K-팝 가수가 방문한 국내 주요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관광홍보관을 연다. 민간기업의 참여도 눈에 띈다. CJ는 영화와 음식,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카스는 한국의 포장마차를 재현한 부스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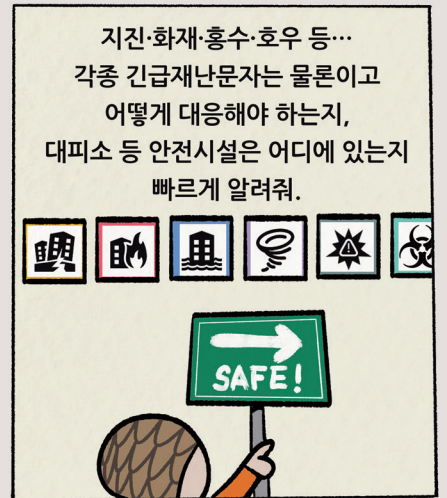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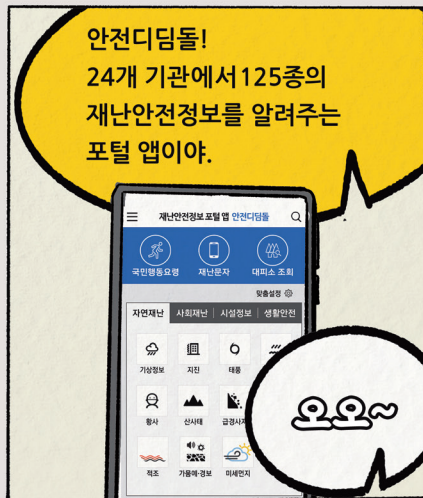
선수단 지원도 충실하게

코리아하우스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고 스포츠 외교를 수행하는 본래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한다.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 응원전도 펼친다.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면 축하행사를 열고 인터뷰도 지원한다. 대회 폐막 전날에는 '선수단의 날' 행사를 열고 올림픽 무대에 오른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 인사들을 초청해 스포츠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한국의 날' 행사도 진행한다. 코리아하우스는 누리집(teamkoreahouse.c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

서경리 기자

안전디딤돌

스마트하게 안전한 여름나기



※외국인용 재난 정보는 Emergency Ready App에서

반려견을 잃고 난 후 집안이 쓰레기장 정리 못하는 이상증상이 생겼어요



정리정돈을 못해서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15년 동안 키우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뒤부터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상증상이 생겼습니다. 집을 치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피로감과 무기력감입니다. 반려견을 떠나보낸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집에 오면 녹초가 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됩니다. 주말을 이용해 집을 정리하다가도 반려견

과 관련된 물건이 나오거나 반려견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면 슬픔이 몰려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지금 집에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 먼지가 가득 쌓인 물건들과 버리지 못한 온갖 쓰레기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청소업체를 불러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 요즘에는 더러운 집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김미진·가명, 36)

독자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giyultv@gmail.com으로
보내면 됩니다.
채택된 사연은
'신기울의 마음 상담소'
지면을 통해
상담해드립니다.



마음이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이 혼란하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도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도 평온해집니다. 공간이 평온하다는 말은 청소가 잘돼 있다는 뜻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공간이 사이 좋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선에 따라 필요한 물건이 놓여 있고 그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어루만진 느낌이 배어 있는 집이 평온한 공간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은 자신이 머문 공간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공간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공간의 구조나 소품 색채, 정돈 상태는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상업시설

“정리의 힘을 믿으세요.
보이는 것이 정리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리된다는 믿음으로
조금씩 집을 정돈해나가면
마음이 함께 정돈되고 있다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반려견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한
공간과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될 겁니다.”



신기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신기울의 마음찾집'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맘'
교육센터장이다.

물에는 다양한 공간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패밀리 레스토랑과 편의점을 들 수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조도가 낮은 주황색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두운 주황색 조명이 식욕을 북돋아주면서 저물녘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안락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조명이 하얗고 밝은 이유는 청결한 느낌과 물건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나 약사들이 흰색 가운을 입는 것과 비슷한 이유지요. 천장이 높을수록 위압감을 주고 천장이 낮을수록 포근한 느낌을 준다는 점을 활용해 권위와 위엄을 강조해야 하는 시설물은 천장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한 유아 시설물은 천장을 낮게 설계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정리되면 보이지 않는 것도 정리된다

미진 님이 살고 있는 집은 미진 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잃은 감정적 충격과 슬픔이 만들어낸 공간의 모습이 바로 지금 미진 님이 살고 있는 집의 모습입니다. 설거지통에 가득 쌓여 있는 그릇과 접시들, 버리지 못한 쓰레기들은 미진 님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반려견과의 기억일 수 있고 제자리를 찾지 못해 여기저기 나뒹구는 물건들은 깊은 상실감에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는 미진 님의 방황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정리 정돈을 통해 미진 님의 아픈 마음 또한 치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 부 이상 판매된 곤도 마리에의 '정리의 힘'에는 정리를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책에서는 정리를 잘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이고 두 번째는 '물건만의 주소를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잘 쓰지 않는 물건을 손에 들고 물건이 자신에게 설렘을 주는지 차분히 느껴봅니다. 설렘을 주면 남겨놓고 설렘을 주지 않으면 버립니다. 버리기로 한 물건은 버리기 전에 물건에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합니다. 버리지 않는 물건은 집주소처럼 물건이 놓여야 할 고정된 위치를 만들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두면 됩니다.

곤도 마리에처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물건을 최소화해 단순하고 간결하게 생활하는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미니멀리즘만이 정리의 정답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생활 스타일로 맥시멀리즘이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과 색채를 활용해 최대한 공간을 풍성하게 꾸미는 것을 맥시멀리즘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작고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집이 그랬습니다. 집에는 3만 권 이상의 책과 예술작품, 가구 등이 화려하게 진열된 것으로 유명했지요. 정리 정돈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성향이 미니멀리즘에 가까운지 아니면 맥시멀리즘에 가까운지 먼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정리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에 맞춰 조금씩 천천히 물건을 정리해가야 합니다. 미진 님, 정리의 힘을 믿으세요. 보이는 것이 정리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리된다는 믿음으로 조금씩 집을 정돈해나가면 마음이 함께 정돈되고 있다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반려견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한 공간과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될 겁니다. **[K]**

국창부터 MZ세대 소리꾼까지 한자리에 모인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사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대한민국의 대표 소리꾼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가 8월 14~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대표 공연인 '판소리 다섯바탕'부터 '청춘예찬 젊은 판소리', '산조의 밤'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판소리 다섯바탕'은 국창부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리꾼까지 다양한 세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올해의 국창, 시대의 명창, 라이징스타 등 세 가지 콘셉트로 나눠 기획했다. 8월 14일 이자람이 '동편제 박봉술 바디 적벽가' 중 '도원결의'부터 '새타령 대목'까지 열창하고 8월 15일 김영자의 '강산제 심청가', 8월 16일 왕기석의 '미산제 수궁가', 8월 17일 박가빈의 '조상현 바디 김제 종제 춘향가' 중 '기산영수', '더질더질'이 이어진다. 8월 18일에는 채수정 명창이 '박록주제 박송희류 흥보가'를 들려준다. '청춘예찬 젊은 판소리'에서는 소리꾼 김송지, 조정규, 강현영, 이정인, 박수범 등이 무대에 오른다. '산조의 밤'에는 지성자, 정희천 두 가야금 명인이 무대에 올라 가야금 산조를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sori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 '탈주' 배우 이제훈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는 없다… 꿈꾸는 자의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도하는 북한병사 규남(이제훈 분)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교구환 분)의 목숨을 건 추격전을 그렸다.

배우 이제훈은 피로 칠갑하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를 뛰어다니는가 하면 늪에 빠지고 타고 가던 차가 뒤집히는 등 몸을 던진 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훈은 “규남에게는 모든 순간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에 매 컷 긴장된 상태에서 촬영했다. '뛰다가 숨이 넘어가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리가 진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지만 도전해보고 싶었다”며 촬영 현장을 회상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단단하고 날렵한 몸을 만들기 위해 탄수화물을 극한으로 줄이다보니 빈혈 증상을 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제훈은 목숨을 건 탈주에 나선 규남이 자신과도 맞닿은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꿈



영화 '탈주'의 한 장면.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꾸는 자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 또한 규남과 다르지 않다. 난 영화라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많이 다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가끔 성공할 것이다. '탈주'는 그 모습을 나의 몸으로 표현한 영화다.”

이제훈은 “규남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실행에 옮기는 인간”이라며 “그것이 규남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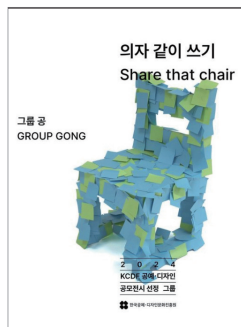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탈주'는 7월 22일 기준 누적 관객수 190만 9228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차지했다. '파묘'와 '범죄도시4'에 이어 2024년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3위를 달리고 있다.



연극 사이클

극적공동체 창작심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희생,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뤘다. 친정엄마와 여자, 여자의 남편과 어린 아들이 함께 사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 아들이 불치병에 걸리면서 숨겨져 있던 어두운 진실이 밝혀진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기간 8월 1~11일 장소 대학로 후암스테이지



전시 의자 같이 쓰기-Share that chair

2024년 KCDF공예·디자인 공모전시에 선정된 '그룹 공'의 전시다. 작가 7인이 만든 각기 다른 '의자'에 이야기를 담아 예술가구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전시는 '대화하기', '남기기', '얹기' 등 세 파트로 구성했다.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작가들이 던지는 질문에 글로 답변을 달아보며 의자의 형태와 쓸모에 대해 소통해본다.

기간 ~ 8월 4일 장소 인사동 KCDF갤러리



발레 돈키호테의 사라진 기억들

댄스시어터샤하르(DTS발레단)의 창작 발레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원작 소설 '돈 키호테 라 만차'를 바탕으로 했다. 작품에서 돈키호테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환자로 등장한다. 기억을 잃어갈수록 더욱 순수해지는 노인 돈키호테, 그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단 하나의 기억은 무엇인지 묻는다.

기간 8월 2~3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도서 못생김의 심리학

외모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정신의학 전문의의 메시지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고등학생 시절 시작된 전두 탈모 증세로 인한 고통을 고백하고 외모보다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개선하기를 제안한다. 현대인의 외모 콤플렉스를 줄이는 마음 처방전이다.

저자 이창주(몽스북)

KTV PD리포트

유엔 참전용사 후손 6박 7일을 따라가다

“가평 677고지 전투에 참전한 할아버지는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흑한기의 그 시간이 힘겨웠지만 황폐했던 한국이 전쟁 이후 몰라보게 발전했다며 뿌듯해 하기도 했어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7월 5일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 캐나다에서 온 레이첼 코테 씨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레이첼 씨의 할아버지는 유엔참전용사인 버나드 코테 씨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195만 명. 그중 3만 7000여 명이 낯선 땅 대한민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후대로 계승하기 위해 15년째 '유엔 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첼 코테 씨도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19개국 참전용사의 후손 148명이 참가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를 기렸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후손들은 그들의 할아버지가 지킨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못다 한 이야기는 KTV PD리포트 이슈본(7월 29~8월 2일)과 유튜브 '정체플랫폼 KTV' 또는 'KTV 누리집-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 **K** 서경리 기자



유엔 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에 참가한 레이첼 코테 씨가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사진 KTV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얼마 전 여름휴가로 제주도
에 다녀왔어요. 빨주노초파남
보 알록달록한 방호벽이 이어
진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를
걸으며 푸른 바다를 즐겼습니
다. 짧은 산책만으로도 피로
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도 덥고 비
도 많이 와서 떠나기까지 고
민이 많았는데 역시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으로 돌아갈 에너지를 채우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어요.

정혜영 서울 구로구

공감 칭찬 합니다!



764호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을 듣고 너무 반
가했습니다. 이번 쾌거는 원전 강대국 프랑스를 제쳤다든 점
에서 K-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된 셈입니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복원돼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
다. 원전산업이야말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경 대구 달서구



763호 '도파민 중독' 시대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열정
을 쏟고 있는 초등교육전문가 김선호 교사를 칭찬합니다. 학
습 저하, 교우관계 악화, 학교폭력 등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져
오는 부작용이 심각한데요.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신체·심리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와의 대화, 독서, 자존감'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김 교사의 주장에 공감하며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blog blog.naver.com/mcst_pr

f facebook.com/wegonggam

k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7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폭염!


이렇게 대비해요!



01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힘들 땐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02 


물을 자주 마시기

규칙적으로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고, **외출할 땐
텀블러**를 꼭 챙기세요.

03 


시원하게 지내기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소재**,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양산**과
모자로 **햇볕**을 가려주세요.

04 

식중독 예방하기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히고,
먹을 만큼만 조리하세요.

05 

주변사람 건강 살피기

어린이, 노약자, 야외근로자 등
이웃의 건강을 살피고 **응급환자**
발생 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2024

슈퍼

K

를 찾아라

2024.7.29.(월)

~ 2024.9.1.(일)

2024 K-정책소통 공모전

정책담당자, 홍보실무자와 한팀이 될 **슈퍼-K**를 찾습니다.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당신만의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상 및 혜택 하나, 총 1,550만원의 상금
둘,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셋, 최우수 4팀 선정,
인플루언서 협업 및 방송 프로그램 출연 기회



참여방식

20개의 정책 중 1개의 정책을 선택 후, 영상, 글, 이미지, 제안서 등
자유로운 양식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콘텐츠 아이디어 제안**

지원방식

홈페이지 접속(슈퍼케이.kr)

접수절차

홈페이지 접속 > 접수하기 클릭 > 신청 양식 작성 > 작품 업로드 > 제출 버튼 클릭